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00호 2025년 09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경기도 이주여성의 다양한 어려움,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가 보듬는다”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개소, 이주여성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경기도 첫 번째 이주여성 전담 상담기관인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센터장 이영아)’가 지난 8월 28일 군포시 당동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이 운영을 맡은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는 통·번역 지원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주여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의료지원·법률구조사업, 긴급쉼터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먼저 ‘영상으로 보는 이주여성의 목소리’를 시청한 뒤 내외빈의 축사를 들었다.

이영아 센터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센터가 앞으로 협력해야 할 기관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개소식에 참여해 주셔서 감

사하다”며 “아시아의창은 법인 설립 이래 상담을 통해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런 노력들이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또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는 앞으로 체류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주여성과 가족의 안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통번역단을 구성해 이주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개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서울과 인천의 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 건수 중 상당수가 경기도 이주여성이 차지했다는 점은 전문 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센터가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해 폭력 피해, 체류 자격, 법률·의료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경기도 이주여성상담센터가 처음으로 군포시에 터를 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주여성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의 모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현판식 및 기념촬영 등으로 마무리됐다. 센터가 다소 비좁은 데다 센터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내외빈과 이주여성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는 앞으로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차별·주거·의료·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상담과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2면에서 계속>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7 오산 8~9 구리 10~11 남양주 12~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평택 22~26 용인 27~29 연천 30 과천 31 성남 32 화성 33~36

중국어(Chinese) 中文 9, 16, 20, 23, 32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5, 11, 13, 28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15, 17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3, 23, 28 영어(English) 6 몽골어(Mongolian) Монгол хэл 11, 34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4, 5, 19, 30 나의 학습 My Study 10, 12, 22 이주배경청소년 4, 7 경기외국인SNS기자단 32 외국인주민 7, 29, 33, 35 도서관 Library 10 교육 Education 36 보건 Health 14, 16 비자 Visa 13, 16, 17, 28, 35 임금체불 11, 23 여가 Leisure 6, 11, 15, 20 산업재해 9, 13, 28, 34 행사 Event 1, 2, 25 주거 Residence 2, 3 국제교류 3, 32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이주여성 인권 중추 역할

〈1면에서 이어짐〉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는 베트남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필리핀어(영어), 태국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폭력 피해 상담과 사후관리, 심리 회복 프로그램, 법률 자문 및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센터 등 관련 기관과도 연계한다.

이주여성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031-429-7919)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통·번역 서비스와 다누리콜센터(1577-1366, 365일

24시간) 연계로 언어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가 드디어 개소한 것을 축하드린다. 센터는 경기도가 다양성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살기가 쉽지 않아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센터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도 차별과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세심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최민 경기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경기도형 이민사회 정책 전략' 마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가 주최했으며 라훤문 책임연구원(한국정책학회) 및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이민사회로 빠르

게 전환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라훤문 책임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공동체 다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관점 전환 ▲산업·경제 연계 ▲광역형 정책체계 및 비자 도입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연계 방안 ▲사회통합·인권보호 강화 등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큰 이민사회로 자리 잡아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인력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연구보고회 결과가 외국인을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장기 정주 정

경기도, 올해 첫 도입 및 공급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 425호를 공급한다.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gh.or.kr>)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콜센터(1588-80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책과 산업·사회 맞춤 전략, 광역 거버넌스를 통해 경기도형 지속 가능한 이민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제시되는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을 단순한 체류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맞춤형 지원·사회 통합 프로그램·산업 연계 전략을 실행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이민정책을 제대로 실현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이민사회로서 외국인을 지역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맞춤형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동시에 이끌어가야 한다”며 “이민사회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



동남보건대와 함께 다문화가족 요리체험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12회 K-cook요리교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8월 14일 동남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협력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별한 요리 프로그램 '제12회 K-Cook 요리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요리교실은 '음식으로 떠나는 여름, 서울 기행'을 주제로,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서울 지역 전통 요리를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동남보건대학교 조리실습실에서 진행됐으며, 교수진의 직접적인 시연과 설명으로 요리의 이해를 도왔다.

참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요리를 함께 만들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방학 기간임에도 함께한 학과 재학생들이 결혼이민자들을 일대일로 도와주

며, 요리 실습을 보다 원활하고 즐겁게 이끌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초계국수, 버섯소불고기, 청포묵주침, 나박김치, 오미자 수박화채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요리교실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은 "전문가에게 직접 요리를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학생들이 친절하게 도와줘 처음 해보는 요리도 어렵지 않았다", "이런 프로그램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K-Cook 요리교실은 한국 음식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알찬 구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의 기자

수원다가, 다문화가족 지원 위한 노동법 특강 실시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8월 19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근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협력으로 마련됐으며, 전문 노동사가 강사로 참여해 산재, 급여, 휴가 등 노동법의 핵심 주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그룹 토의와 발표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노동법 내용을 수강생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이자 서포터즈 단원인 한 베트남 출신 수강생은 "평소 일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근로 현장에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늘 궁금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서포터즈 단원으로서 오늘 교육 내용을 많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접할 수 있도록 알릴 것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노동법 교육을 비롯해,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 모집!

수원시, 미성년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접수 받아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고일(9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이 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 3억 3700만 원,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수원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49세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이사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가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전자우편(hys50@korea.kr) 또는 방문(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신청도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금까지 총 151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살 집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시민 8 도야마.후쿠이 시민과 교류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도야마시와 후쿠이시에서 '2025 일본 언어.문화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민 10명과 인솔자 1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도야마시와 후쿠이시의 화상언어교류 참가자들과 동행하며 언어.문화교류를 했다. 먼저 도야마시에서 두 도시 언어교류 참가자들이 교류했다.

콤팩트시티 정책 강연을 듣고, 다테야마 알펜루트 탐방, 유리공예 체험, 전통춤 관람 등을 했다. 이어 방문한 후쿠이시에서도 언어교류 참가자들과 함께 이치조다니 아사쿠라씨 유적을 견학했다. 또 '만토야 쫓돌 축제'에서 수원시민과 후쿠이시민이 함께 캔들 메시지컵을 제작하고, 점등식에 참여했다.

'만토야 쫓돌축제'는 후쿠이시 아스와 지구의 침수 복구 작업에 참여한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전하기 위해 시작됐다.

김영의 기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윤영민 요셉)는 지난 8월 20일 문화 취약 계층인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 및 단체들과 협력해 아이스스케이팅 문화활동을 진행했다.

3년차 진행된 이번 스포츠 문화체험은 '더코너스톤'에서 스케이팅 장비 대여 및 체험비를 지원했으며 '(주)삼성전기 사회공헌단'에서는 임직원 전용 통근차량 2대를 지원해 마련됐다.

특히 '수원특례시여자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이 직접 스케이팅 강습을 맡아 총 80명의 이주배경청소년과 직원들에게 문

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무더위를 한번에 날리는 시원한 아이스링크에서 선수들의 지도를 받으며 즐겁게 문화활동에 참여했다.

한 이주배경청소년은 "아이스스케이팅을 처음 타보는데 하키 선수가 알려주니까 금방 탈 수 있게 됐다"며 "친구들과 함께 스케이팅을 타니까 더 재미있고 즐겁다"고 말했다.

김도윤 수원특례시여자아이스하키팀 감독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아이스링크를 경험하는 일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 3년째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며 "현

장에 나와 아이스하키를 경험하면 스피드와 박진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민 센터장은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아이스스케이팅 문화 체험을 3년째 지원해준 '더코너스톤'과 '삼성전기 사회공헌단', '수원시여자아이스하키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막바지 무더위를 시원하게 보내는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또 "특히 수원시여자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은 이번 시즌 우승 후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스케이팅 강습과 지도를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2026년 시즌에는 저희가 직접 아이스하키 경기 응원에 나서 선수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매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 '수원새빛돌봄 슬기로운 임신생활' 참여자 모집...선착순 118명에게 가사지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9월 1일부터 '수원새빛돌봄 슬기로운 임신생활'에 참여할 임신부 11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원새빛돌봄 슬기로운 임신생활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전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교 프로그램과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위소득 기준은 태아를 포함한 가구 인원수로 산정한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광고종합사회복지관(34명), (사)수원YWCA(28명),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33명), 영통종합사회복

지관(23명) 등 4개 기관이 참여자를 모집해 운영한다. 선정된 참여자에게 태교태라피, 감성태교, 쿠킹클래스, 플라워클래스 등 임신부를 위한 다양한 태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자는 태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기관에 마감 여부를 확인하고, 각 기관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

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보건소는 '2025년 하반기 임신부 건강교실'을 9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운영한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예비)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영상교육 프로그램이다. 건강한 출산·육아 방법을 알려준다. ▲(예비부모교실)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라, 부모학개론 ▲(부부교실) 신생아 실전케어 속성편 ▲(출산교실) 주수별 임신의 모든 것 ▲(출산교실) 영

양사 선생님이 알려주는 아기 이유식 등 총 4개 강의를 3개월간 시청할 수 있다.

12월 5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전화로 신청하거나 새빛톡톡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신·출산과 육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라며 "출산 가정과 예비 부모가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육아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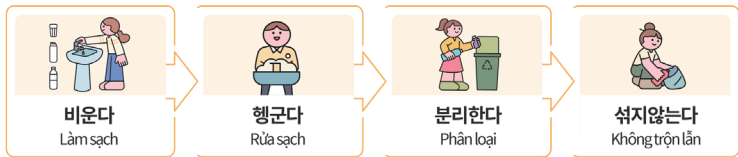
송하성 기자

02 생활쓰레기처리 Xử lý rác thải sinh hoạt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Phương pháp phân loại và thải rác sinh hoạt

- 👍 **배출장소:** 내 집(집포) 앞 **Vị trí thải rác:** Trước nhà (cửa hàng)
- 👍 **배출시간:** 20시 ~ 다음날 05시(일요일 ~ 목요일)
- Thời gian thải rác:** 20:00 tối ~ 05:00 sáng ngày hôm sau (từ chủ nhật ~ thứ 5)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Phương pháp phân loại và thải rác sinh hoạt



구분 Phân loại	내용 Phương pháp phân loại và thải rác
일반쓰레기 Rác thường (Rác đống)	[타는쓰레기] 휴지, 천조각 등 이물질 묻은 쓰레기 Khăn giấy, mảnh vải v.v. khi dính các chất khác 흰색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배출 Cho vào túi rác trắng trong/loại, loại đốt màu trắng trước khi thải
음식물쓰레기 Rác thức ăn	수분 제거 후 엷은 황색 음식물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RFID)에 배출 Sau khi loại bỏ nước, cho vào túi rác thức ăn màu vàng nhạt hoặc thùng rác chuyên dụng (RFID)
플라스틱류 Nhựa	내용물 비우고 압축하여 배출 Làm sạch các chất bên trong và nén lại trước khi thải
비닐류 Ni lông (nhựa Film)	이물질 제거 후 배출 Làm sạch các chất dính trước khi thải
종이류 Giấy	신문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빈듯하게 펴서 끈으로 묶어 배출 Không để giấy báo bị ướt, trải phẳng ra, cột lại bằng dây trước khi thải 책, 상자류는 다른 재질 제거 후 배출 Loại bỏ các chất liệu khác trên sách, hộp giấy trước khi thải
유리병 Thủy tinh	이물질 제거 후 병뚜껑 분리하여 배출 Làm sạch các chất bị dính, phân loại nắp trước khi thải
스티로폼 Xốp	농축수산물 포장 스티로폼, 컵라면 용기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Xếp đóng gói nông, gia súc, thủy sản hộp mi v.v. Làm sạch trước khi thải
대형폐기물 Đồ phế liệu lớn	가구, 가전제품 Đồ nội thất, thiết bị gia dụng 종량제봉투 70x100cm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시스템(https://waste.suwon.go.kr)에서 스티커 구입 부착 후 배출 Mua nhãn dán tại cửa hàng bán túi rác trong/loại hoặc trên trang web(https://waste.suwon.go.kr) đồ phế liệu lớn, dân vào trước khi thải

03 지방세안내 Hướng dẫn nộp thuế địa phương

수원시 지방세 안내 HƯỚNG DẪN NỘ THUẾ ĐỊA PHƯƠNG TP SUWON

- ✔ 정기분 지방세 Thuế định kỳ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기준일에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자가 결정되고 부과·고지되는 지방세

Đối tượng nộp thuế, tiêu chuẩn của lịch nộp thuế được quyết định và thông báo đánh thuế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thuế địa phương

월 별 Tháng	세 목 Tên thuế	과세기준일 Lịch nộp thuế	납세의무자 Đối tượng nộp thuế	납부기한 Thời hạn nộp thuế
1월 Tháng 1	등국면허세(면허) Thuế đăng ký cấp giấy phép	1. 1.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 Người được cấp giấy phép các loại	1.31.
6월 Tháng 6	자동차세(1기분) Thuế ô tô (quý 1)	6. 1.	등국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Người đăng ký sở hữu xe ô tô	6.30.
7월 Tháng 7	재산세(건축물, 주택1/2) Thuế tài sản (tòa nhà, sở hữu 1/2 căn hộ)	6. 1.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 Người sở hữu căn hộ và tòa nhà	7.31.
8월 Tháng 8	주민세 Thuế định cư	7. 1.	관내 주소를 둔 주민 Người dân có địa chỉ trong thành phố	8.31.
9월 Tháng 9	재산세(토지, 주택1/2) Thuế tài sản(đất đai, sở hữu 1/2 căn hộ)	6. 1.	토지 및 주택 소유자 Người sở hữu căn hộ và tòa nhà	9.30.
12월 Tháng 12	자동차세(2기분) Thuế ô tô(quý 2)	12. 1.	등국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Người đăng ký sở hữu xe ô tô	12.31.

- ✔ 신고분 지방세 Kê khai thuế địa phương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 납세자가 해당 과세 관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Trường hợp là đối tượng nộp thuế, phải đăng ký nộp thuế tại cơ quan đánh thuế trực thuộc trong kỳ hạn đã định theo luật thuế địa phương

세 목 Tên thuế	납세의무자 Đối tượng nộp thuế	신고납부기한 Thời hạn kê khai nộp thuế	신고처 Nơi nộp thuế
등록면허세(면허) Thuế đăng ký cấp phép (gấp phép)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변경하려는 자 Người được cấp hoặc thay đổi giấy phép/cho thuê	면허증서를 발급 또는 승달받기 전까지 Thuộc ngày nhận được hoặc ngày được cấp giấy phép	사업장 관할 구청 Ủy ban quản thuế nơi kinh doanh
등록면허세(등록) Thuế đăng ký cấp phép (đăng ký)	등기(등록)을 하는 자 Người thành lập (đăng ký)	등기(등록)하기 이전까지 Trước khi thành lập (đăng ký)	등기 물건 관할 구청 (차량, 부동산 : 전국) Cơ quan đăng ký tài sản tại thành phố (xe ô tô, nhà đất)
취득세 Thuế trước bạ	부동산(차량) 취득하는 자 Người sở hữu bất động sản/xe ô tô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 Trong vòng 60 ngày kể từ ngày sở hữu	등기 물건 관할 구청 (차량, 부동산 : 전국) Ủy ban quản có thẩm quyền về môn sở hữu (xe ô tô, nhà đất, trên toàn quốc)
주인세(종업원) Thuế chủ cũ (nhân viên)	종업원 월평균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초과 사업주 Chủ doanh nghiệp chi tổng mức lương trung bình hàng tháng cho nhân viên vượt quá 150 triệu won	급여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Đem ngày 10 sau tháng trả lương	사업장 관할 구청 Ủy ban quản thuế nơi kinh doanh
주인세(사업소본) Thuế chủ cũ (khuvực kinh doanh)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두 개인 및 법인 Các cá nhân và pháp nhân chủ sở hữu cơ sở kinh doanh trước thuế thuộc khu vực ngày 1/7 hiện tại, vượt quy mô nhất định theo lệnh tổng thống	매년 8.1. ~ 8.31. Ngày 1/8 - 31/8 hàng năm	사업장 관할 구청 Ủy ban quản thuế nơi kinh doanh

세 목 Tên thuế	납세의무자 Đối tượng nộp thuế	신고납부 기한 Thời hạn kê khai nộp thuế	신고처 Nơi nộp thuế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Thuế thu nhập địa phương (phần thuế đặc biệt)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자 Đối tượng có nghĩa vụ đồng thu thuế thu nhập, pháp nhân thuế: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Ngày thu thuế là ngày 10 tháng sau	사업장 관할 구청 Ủy ban quản thuế nơi kinh doanh
지방소득세 (양도, 종합, 법인) Thuế thu nhập địa phương (phần chuyển nhượng, tổng hợp, pháp nhân)	소득세(양도, 종합)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Người có nghĩa vụ nộp thuế pháp nhân và thuế thu nhập (chuyển nhượng, tổng hợp)	소득세(법인세) 신고 기간의 만료일까지 Đến ngày hết hạn thời hạn kê khai thuế thu nhập (pháp nhân)	주소지 관할 구청 Ủy ban quản thuế nơi kinh doanh
지역자원시설세 (특자) Thuế cơ sở vật chất và tài nguyên khu vực (đặc quyền)	특정 자원(지하수 등)을 채수하는 자 Người đặc quyền khai thác tài nguyên (đồng nước ngầm)	다음 달 말일까지 Đến cuối tháng sau	특정 자원 관할 구청 Ủy ban quản thuế thuộc đặc quyền tài nguyên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관련 안내

Hướng dẫn nộp thuế địa phương và các khoản thu nhập ngoài thuế

담당부서: Bộ phận phụ trách **수원시 징수과:** Phòng thu thuế TP Suwon ☎031-228-3189/2730

- ☑ **체납시 행정제재** Phạt hành chính trường hợp nộp thuế trễ hạn

구분 Phân loại	내용 Nội dung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 ▶ 출금금지 요청 Trúng hợp trẻ hạn nộp thuế trên 30 triệu won và không có lý do hợp lý ▶ cấm xuất cảnh 체납발생 후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 ▶ 체납자 연단 공개 Trúng hợp trẻ hạn nộp thuế trên 1 năm với mức trên 10 triệu won ▶ bị công khai danh sách của người trẻ hạn nộp thuế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 ▶ 관허사업 제한 요구 Trúng hợp trẻ hạn nộp thuế trên 3 lần với mức trên 300 nghìn won ▶ bị hạn chế kinh doanh do chính phủ cấp phép
지방세 thuế địa phương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체납시)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시 6개월 제한 연장 Trúng hợp trẻ hạn nộp thuế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đăng ký theo điều 31 của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hoặc Điều 6 của Luật xuất nhập cảnh và địa vị pháp lý của kiều bào ở nước ngoài đã khai báo cư trú trong nước, phải nộp giấy chứng nhận nộp thuế cho Bộ Tài chính Bộ Tư pháp về việc cho phép lưu trú theo lệnh chủ tịch nước, chẳng hạn như giấy phép gia hạn thời gian lưu trú. ▶ bị hạn chế gia hạn thời cư trú ở trú 6 tháng khi gia hạn. ※ 외국인 비자연장 전세금채납 확인제도 시행(2017년) ※ Thi hành chế độ xác nhận nộp thuế trước khi gia hạn cho người nước ngoài (năm 2017) ※ 업무손사별 관련법령: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11조, 제17조, 제15조제10호 ※ Liên quan theo luật trình tự làm việc: Điều 8, 11, 7, 5 và 10 của Luật thu thuế địa phương

한국신용정보원 체납자료 제공카드 발급·신용대출 제한
 Cung cấp dữ liệu nợ thuế cho viện thông tin tín dụng Hàn Quốc bị giới hạn đăng ký thẻ ngân hàng và vay tín dụng

- **지방세: 체납발생 후 1년 경과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Thuế địa phương: Trường hợp trễ hạn nộp trên 1 năm với mức trên 5 triệu won, hoặc trên 3 lần với mức trên 5 triệu won
 ※ **관련법령:** 지방세징수법 제9조 ※ **Luật liên quan:** Điều 9 của Luật thu thuế địa phương
- **세외수입: 체납발생 후 1년 경과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Thu nhập ngoài thuế: Trường hợp trễ hạn nộp trên 1 năm với mức trên 5 triệu won, hoặc trên 3 lần với mức trên 5 triệu won
 ※ **관련법령:** 지방행정재무과금법 제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Luật liên quan:** Điều 6 của Đạo luật phụ thu và phạt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iều 53 của Đạo luật quy định vi phạm trật tự công cộng

지방세·세외수입 공통
 Thuế địa phương, các khoản thu ngoài thuế chung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Giám biên số xe ô tô

-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Thuế địa phương: Trường hợp nộp nộp thuế không nộp thuế ô tô chưa thanh toán trong thời gian thúc giục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1조 ※ **Luật liên quan:** Điều 131 của Luật thuế địa phương
- **세외수입: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Thu nhập ngoài thuế: Theo điều 2 số 1 của 'Luật quản lý ô tô'
 Trường hợp không nộp phạt vì vi phạm trật tự quy định theo lệnh chỉ thị chức nước, liên quan đến vận hành, quản lý ô tô
 ※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Luật liên quan:** Điều 55 luật quy định hành vi vi phạm trật tự

- ☑ **체납 시 체납처분 진행** Tiến hành xử lý tình huống trễ hạn nộp thuế

구분 Phân loại	내용 Nội dung
지방세 세외수입 공통 Thuế địa phương các khoản thu nhập ngoài thuế chung	채납자의 모든 재산 압류 가능 (단, 조세채권과 그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범위의 재산 압류금지) Có thể tịch thu tất cả các tài sản của người nợ thuế. (Tuy nhiên, cấm thu giữ tài sản trong phạm vi số tiền cần hoàn trả vượt quá mức yêu cầu thu thuế)

※ 관련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07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제1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4조의4

※ **Luật liên quan:** Luật thuế địa phương Điều 33 đến 107, Luật phụ thu xử phạt hành chính địa phương Điều 8 đến 19 Điều 16 đến 24-4 của Luật kiểm soát vi phạm trật tự công cộng

2025년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서

폭염에 지친 외국인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 4개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양평군 용문면 소재)는 9월 27~28일과 10월 25~26일 총 2회에 걸쳐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를 진행한다며,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청소년 자녀를 둔 경기도민 가족이며, 신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8월 11~20일까지 진행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회차별 15~20가족 규모로 운영된다.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를 거점으로 여주시 세종대왕릉, 양평군 중미산천문대 등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이튿날에는 가족 간 소통을 주제로

창의 체험 프로그램과 진로 설계 활동이 이어진다.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

경기도가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매주 토요일·일요일 총 8회에 걸쳐 ‘2025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를 연다.

8월 23일에는 영화 ‘소방관’을 상영한다. 관람 전 이동식 소방 안전 체험 차량을 활용한 소방 안전 체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부스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에도 매주마다 영화 ‘코다’, 애니메이션 ‘쿵푸팬더4’, ‘수퍼배드4’, 뮤지컬 영화 ‘웡가’ 그리고 ‘리틀포레스트’가 상영될 예정이다.

특히 매주 토요일에는 저녁 6시부터,

일요일에는 저녁 5시부터 마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영화는 공연 종료 후 저녁 7시 반에 상영되며, 누구나 별도 관람료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편안한 관람을 위해 선착순으로 돛자리를 무료 대여할 예정이다.

4개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기도는 무더위를 피해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평 잣향기푸른숲 등 4곳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가평 잣향기푸른숲(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프로그램), 포천 하늘아래치유의숲(마음 치유 프로그램), 양평 용문산치유의숲(산림치유 프로그램), 동두천치유의숲(다양한 산

림 체험시설 운영) 등 4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숲속 명상, 건강 산책 등 다양한 자연 기반 프로그램으로 도민들에게 소소한 쉼과 위로를 제공하고 있다.

4곳의 숲 모두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가진 곳으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각 치유의 숲 누리집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비용은 대부분 무료에 가깝다. 다만 치유의 숲마다 비용, 운영시간, 예약방법 등이 다르니 참여 희망자는 이용 전 유선문의 또는 각 치유의 숲 누리집 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어 20면, 러시아어 15면, 영어 6면, 몽골어 1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Gyeonggi-do programs that even foreign residents can participate in’

Starry Night Camp with Family

Gyeonggi Future Education Yangpyeong Campus of Gyeonggi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Agency (located in Yongmun-myeon, Yangpyeong-gun) is recruiting participant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for the ‘Starry Night Camp with Family’, which will be held twice on September 27-28 and October 25-26 for a total of 2 days and 1 night on weekends.

Participation is open to all Gyeonggi-do residents and families with children in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or high school.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from August 11th to 20th on the Gyeonggi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Agency website. Participation is free, and each session will accommodate 15 to 20 families.

Based at the Gyeonggi Future Education Yangpyeong Campus, the program will offer a variety of experiential activities at sites where

history and nature intertwine, such as the Royal Tomb of King Sejong in Yeosu and the Jungmisan Observatory in Yangpyeong.

The following day, creative experiential programs and career planning activities will focus on family communication.

Gyeonggi Peace Plaza Lawn Film Festival

Gyeonggi Province will host the "2025 Gyeonggi Peace Plaza Lawn Film Festival" eight times a week, every Saturday and Sunday, from August 16th to September 7th, at the Gyeonggi Peace Plaza in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Northern Building.

On August 23rd, the film "Firefighter" will be screened. Before the screening, visitors can participate in a fire safety experience using a mobile fire safety experience vehicle and a CPR training booth.

After this, the movie ‘Coda’,

the animation ‘Kung Fu Panda 4’, ‘Despicable Me 4’, the musical film ‘Wonka’, and ‘Little Forest’ will be screened every week.

In particular, performances of various genres, including magic, music, and dance, will be held every Saturday at 6 PM and Sunday at 5 PM. Film screenings will follow the performances at 7:30 PM, and admission is free for all. To ensure a comfortable viewing experience, free mats will be available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Four Forest Healing Programs

Gyeonggi Province is operating a ‘Forest Healing Program’ in four locations, including Gapyeong Jathyanggi Blue Forest, to help people escape the heat and recover their body and mind in the forest.

Forest healing programs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four locations: Gapyeong Pine Scented Green Forest (stress and conflict

relief program), Pocheon Haneularae Healing Forest (mental healing program), Yangpyeong Yongmunsan Healing Forest (forest healing program), and Dongducheon Healing Forest (operating various forest experience facilities). These programs, including forest meditation and health walks, provide residents with a sense of respite and solace.

Each of the four forests offers unique characteristics and strengths, offering a truly remarkable experience.

Citizens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forest healing programs can make reservations in advance through the respective forest healing website or by phone. Most programs are free. However, fees, operating hours, and reservation methods vary by forest, so prospective participants should inquire by phone or check the information on the respective forest healing website beforehand. 〈한글 기사 상단〉

PapayaStory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8월 24일 외국인 근로자 대상 2학기 한국어 교육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총 97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2명이 개근했다. 또한 70% 이상 출석한 65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여름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학습에 매진한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양해규 센터장은 축하사에서 "유난히 더운 여름 동안 열심히 공부해 수료한 여러분 모두를 축하한다"라며 "한국 사회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꼭 배워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국어를 더 잘 배우고 익혀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언어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기회였다.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근로자들이 더욱 원활하게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를 통해 생활의 편리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수료식은 단순한 교육의 마침표가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3학기 한국어 교육은 9월 14일 개강할 예정이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수원시, WTA·미스터토일렛 심재덕기념사업회와 네팔 스리암바리에 '수원화장실' 건립

수원시, 세계화장실협회(WTA, 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사)미스터토일렛심재덕기념사업회가 네팔 스리암바리 기초학교에 '수원화장실'을 건립하고, 28일(현지 시각) 준공식을 열었다.

수원시가 1300만 원, (사)미스터토일렛심재덕기념사업회가 1400만 원을 WTA에 지원해 수원화장실을 건립했다. 2024년 여자 화장실을, 올해는 남자 화장실을 설치했다.

▲여학생 화장실은 면적 28.5㎡ 규모에 대변기 4개, 세면대 3개, 장애인 화장실 1개 ▲남학생 화장실은 면적 25.5㎡ 규모에 소변기 4개, 대변기 4개, 세면대 4개, 장애인 화장실 1개로 지어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원형 WTA 사무국장, 심영찬 심재덕기념사업회 부회장, 비하디 군청 관계자, 스리암바리 기초학교 교직원과 학생,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원형 WTA 사무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교육 및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TA는 2007년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초대 회장으로 창립한 국제 비영리 단체다.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9개국 50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다.

수원시와 WTA는 오는 10월 개발도상국 화장실 관계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인 '제10회 세계 화장실 리더스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모든 청소년과 함께한 중국문화 체험...수원글청, 청소년 국제교류 '중국문화 체험'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윤영민 요셉)는 지난 8월 21일 총 20명의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이 함께 한 '중국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글로벌교실 '다 같이 통(通)하다'란 사업명으로 진행되는 국제교류활동은 수원교육지원청 지원 사업으로 이주배경 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이 함께 어울려 서로의 나라 언어를 배우고 상호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8월 8일에는 '한국문화'



를 체험했으며, 이번 활동에서는 중국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인천 중국어마을을 방문했다.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이 함께 조를 구성해 '한중문화원'투어, 중국전통의상 '치파오'체험으로 중국 문화와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는 곧 다가올 추석을 맞이해 중국의 추석때는 무엇을 하며, 한국 송편과 같은 중국의 '월병'을 버블밀크티와 직접 만들어 먹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전통놀이인 '마작'도 배워보고, 변검마술쇼 공연도 관

람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알려주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청소년들은 "매우 재미있었어요. 만드는데 재미있었고 맛있었어요", "황제 옷을 입어본 것과 변검마술쇼, 밀크티 만드는데 기억이 많이 남아요" 등의 소감을 밝혔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각 서로의 언어(한국어-중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9~10월에는 경복궁, 다문화 체험관, 음식만들기 등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 문화교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사례관리 실천을 기반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교육, 심리.정서, 자립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역량을 계발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센터(031-247-132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swglobalyouth.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온가족이 함께 볼링 즐기며 가족애 속속!

오산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애(愛) 프로그램 진행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23일 ‘온가족보듬사업-가족애(愛) 프로그램’ 5회차 활동으로 ‘온가족이 함께하는 볼링 한판,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아닌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바쁜 일상에서 가족이 함께 여유를 즐길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참여한 한 보호자는 “가족이 화합되어 좋았고, 평소에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오산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가족애(愛) 프로그램은 위기 가족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기능 회복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고 가족 중심의 사례관리

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더욱 풍성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애 프로그램은 올해 총 5회기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활동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산시가족센터는 내년에도 가족의 소통과 정서적 회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돼

오산시 전역이 8월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거래로, 매수 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 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각각 초과할 경우 오산시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또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 방안을 내놴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다. 김영의 기자

오산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아빠랑 드론 탐험대' 운영

오산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문화 적응과 가족 간 소통 증진 및 지역사회 내 사회통합을 위한 ‘2025년 아빠가 빛나는 학교-아빠랑 드론 탐험대’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한국민속촌 나들이체험으로 구성됐다.

부모-자녀교육은 오는 9월 1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각 가정에서 실시간 Zoom을 통해 진행된다. 한국민속촌 나

들이체험은 9월 20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천연 염색 등 다양한 전통체험 활동이 이뤄진다. 나들이 체험은 부모교육 이수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단체버스를 통해 이동해 개별 귀가는 안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9월 11일 낮 1시까지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

는 가족은 구성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한다.

오산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오산시가족센터 가족지원2팀(070-4336-1405)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오산시가족센터, 대화와 놀이로 키우는 이중언어...두 가지 언어의 날개 선물해요

오산시가족센터는 이중언어교육사업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아이가 가정에서 일상 속 대화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1세~12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양육 스트레스 소진 예방 교육으로 8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생화 꽃꽂이가 진행됐으며, 9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언어로 여는 책 속 여행’이 운영된다. 이중언어 교육의 의미와 이론 이해를 주제로 대상자 가정에서 수업이 이뤄지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총 5회 진행된다.

아동 언어 문식성 이해교육은 대면교육으로 9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4회 진행된다. 읽기 능력 확장 및 활동 설계, 실습 중심 학습이 이뤄지며,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교육 장소는 오산시가족센터다. 센터 관계자는 “이중언어교육은 아이의 듣기-

말하기-읽기-쓰기 전 영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가족 대화 학습으로 이어져 아이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며 “학업 적응력, 사회성, 창의력을 키우며, 부모가 배우고 바로 활용 가능한 가정용 계획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오산시가족센터 가족지원3팀 이중언어코치(070-4918-9173)에게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工伤事故不能一再发生... 不采取安全措施将损失更大”

李在明总统,最近指责外国人工伤问题,“将采取一切必要措施” 산재예방, 다양한 해결방안 제시



今年以来外国劳动者的工伤死亡事故接连发生,李在明总统也指示要尽一切努力避免发生工伤事故。我们来一起了解下吧?

外国劳动者工伤事故反复发生

最近在韩国的产业现场,外国劳动者被集中安排在危险工作岗位中,在没有充分的安全措施的情况下投入工作,导致死亡或重伤的事故反复发生。今年6月,在名为“POSCO E&C”的

公司施工的高速公路施工现场,斯里兰卡籍劳动者被穿孔机夹死,8月初在另一条高速公路施工现场,缅甸籍30多岁劳动者疑似因触电事故陷入心跳骤停状态。

7月初,在庆北龟尾的公寓施工现场,越南国籍的20多岁临时工在酷暑中倒地身亡,同月在京畿金浦的一家工厂,缅甸国籍工人在夜间工作后失去意识死亡。

产业灾害比重逐年增加

问题是外国劳动者工伤死亡者比重逐年增加。

据国家人权委员会透露,外国劳动者占2022年全体工伤死亡者的9.2%(85人)、2023年10.4%(85人)、2024年上半年11.8%(47人)。考虑到外国就业者

比率约为5%,这意味着高风险岗位在相对集中地分配给了外国劳动者。

为了解决这些问题,要制定▲语言支援▲强化安全教育▲保障拒绝危险作业的权利等符合外国人特性的安全管理体系,并在实际现场适用。

雇佣劳动部长官金英勋(音)表示:“营造外国劳动者无差别工作的环境是最重要的”,“对于侵害外国劳动者人权的行爲,将以零容忍原则应对。”

不允许侵害移民者人权

问题很严重但却没有得到改善,最终总统出面了。

韩国总统李在明8月12日在国务会议上表示:“还有比人的生命更重要的东西吗? 特别是为了生存而去的工作岗位绝对不能成为死亡的现场”,“一定要

摆脱反复发生的工伤。对于没有做好安全措施的企业,应该进行严格的制裁。”李总统还指出:“为了赚钱,为了减少费用,没有采取安全措施,如果有人因此死亡,就等于杀人”,“为了节省费用,如果不采取安全措施,必须让其付出更大的代价”。

李总统还提到了对外国人和弱势群体的人权侵害、暴力和歧视问题。他强调:“韩国可以说是重视多样性和包容性的民主主义模范国家,但是最近发生了与此不符的事情”,“有关当局为了不再发生对移居劳动者或外国人、社会弱者的不正当歧视或人权侵害等,要彻底采取必要措施,必要时也要制定制度上的补充对策。”

〈한글 기사 34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2025년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가족에서 시작하는
이중언어 능력

양육 스트레스 소진예방 교육 **생화 꽃꽂이 1회**

일정: 8월 28일(목) 10시~12시

장소: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 집합 이동)

두 언어로 여는 책 속 여행 **zoom 5회**

일정: 9/1일~9/29일 매주 월요일 13~15시

장소: 대상자 가정

아동 언어 문식성 이해 교육 **대면 4회**

일정: 9/5일~9/26일 매주 금요일 13~15시

장소: 오산시가족센터

이용대상

1세~12세
자녀를 둔
다문화부모
• 10회 참여 가능자 우선

접수기간

8월 13일(수)
~
8월 27일(수)

신청방법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처

가족지원3팀
070-4918-9173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오산시가족센터
OSAN FAMILY CENTER

경기도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오산시가족센터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2025 * 오산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캠프 한국민속촌 Korean Folk Village!

2025.9.20.(토)

이번 여름, 자녀에게 한국문화를 선물하세요.
전통 놀이와 체험을 통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한국민속촌에서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osan.familynet.or.kr

대상

오산시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90명
*필수교육 이수자 한정

신청방법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예) 김철수(아빠),김수현(자녀)
모두 신청시 접수 완료

신청기간

2025.8.22.(금) 10:00 ~
9.11.(목) 18:00
*9.12.(금) 내부기준에 따른 선정 후
참가 확정 인원 개별 안내 예정

구분	일시	내용	장소
필수교육	9.17.(수) 19:00~21:00	부모-자녀 교육 / 부부-자녀교육 (실시간 ZOOM)	각 가정
한국민속촌 나들이	9.20.(토) 09:00~17:00	한국민속촌 나들이 - 2025.9.20.(토) 09:00까지 오산 시청 정문 건너편 정류장 집결 -가족 별 체험 및 자유관광 후 16:00까지 버스 탑승	한국 민속촌

문의

☎ 070-4336-1405 / 가족지원 2팀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오산시가족센터
OSAN FAMILY CENTER

다문화가족도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다양한 프로그램 '확인'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프로그램 접수, 청소년동아리 별빛 밤 축제, 소규모 학습모임 모집 등

여성행복센터 수강생 모집

구리시(시장 백경현) 여성행복센터는 2025년 제3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24일 까지 2주간 수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정원 미달 과목 32개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7일까지 방문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용·자기 계발·문화·건강·여가 등 5개 분야, 총 64개 과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9명의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정원 1,103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주이다.

교육과정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 교육, 자기 계발을 위한 창의적 강좌, 건강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연령과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청소년동아리 별빛 밤 축제

구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강종일)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새로운 소통과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는 9월 20일(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구리광장에서 '2025 청소년동아리 어울림마당-별빛 밤 축제'를 운영한다.

'청소년동아리 어울림마당-별빛 밤 축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참여형 야간 축제로, 유아, 청소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들과 실무자들이 주체가 되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청소년동아리 체험 부스, 야광 페이스페인팅, DIY 만들기 등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에어스크린과 빔프로젝터를 활용한 야외 영화 상영도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특별한 가을 밤의 문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소규모 학습모임 모집

구리시는 생활 속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소규모 학습모임 지원사업' 참여 학습모임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학습모임 운영 장소에 따라 '구리시 우리 동네 학습공간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개 분야이다. 상반기에는 총 40개 학습모임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42개 소규모 학습모임을 선정해, 팀당 강사비 4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지원 신청은 구리시 평생학습 포털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수택평생학습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8일부터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031-550-2186 이지은 기자

구리시, 9월 독서의 달 맞아 풍성한 독서문화 행사... 다채로운 문화 향연 펼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한 달간 구리시립도서관 주관으로 '작가와 함께하는 북 토크', 부모교육 강연, 팝업북 공연, 특강 프로그램, 야외 행사 체험부스 운영 등 전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인창도서관은 <책 읽는 구리광장>을 주제로 9월 27일(토) 낮 12시부터 5시간 동안 구리역 앞 구리광장에서 야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책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야외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독서와 메이커 체험, 페이스페인팅, 인창전문대존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구리광장 안에 '책 읽는 가을'을 주제로 한 '독서 힐링존'이 마련된다. 이곳에는 도서 큐레이션과 함께 캠핑 의자 등을 비치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독서와 보드게임을 즐기며 책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가을 오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토평도서관은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특강, 공연,

체험 강좌를 운영한다. 9월 5일(금)에는 '매일 아침 써봤니?'의 저자 김민식 작가가 '읽고 쓰다, 인생을 다시 커다'를 주제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온 경험을 전한다.

13일(토)에는 김수현 초등교사가 '온 가족 책 읽기 혁명'을 바탕으로 가족 독서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19일(금)에는 전파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가 '별처럼 시처럼 과학을 읽다'를 주제로 과학책 읽기의 필요성과 매력을 전하는 강연을 진행한다. 이지은 기자

구리시가족센터와 함께해요 ♥

자녀돌봄 스트레스 완화 집단프로그램

일상에서 스트레스 지친 분들을 위한 "나다움 회복"의 시간

모집 대상: 나의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돌보고 싶은 분

모집 기간: 8/18(월) ~ 9/3(수)

활동 날짜: 9/6일, 13일, 20일, 27일 매주 토요일 10:00~12:00 / 4회기

활동 장소: 구리시여성행복센터 4층 소회의실

신청 방법: 구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QR코드 접속 후 로그인, 신청하기

문의: 상담사팀 070-7776-0071

교류소통공간

다가온 중국문화체험편

중국 경극에 대해 알아보기

중국 경극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경극가면 만들기>

일시: 2025년 9월 12일(금) 19:00~20:00

장소: 다가온(구리시장내 공영주차장 1층, 구리시 검배로 6번길 31)

내용: 중국문화체험(중국 경극에 대해 알아보기, 경극가면 만들기)

대상: 구리시민가족 15명

문의: 070-7775-6978

구리시 가족센터 가족사업팀 김다은

온가족보듬 교육문화

청소년 자녀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부모 소통 교육

'달팽이의 속도로 함께 걷기'

느린학습자를 이해하고, 자녀의 속도에 맞춰 소통하는 방법!

교육 일시: 2025. 09. 13 (토) 10:00~12:00

교육 장소: 구리시가족센터 대교육장

강사: 이승미 (마음소리통합상담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안내

신청대상: 구리시 거주 느린학습자 자녀 등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누구나 15명

신청기간: 2025.08.27 (수) ~ 선착순 마감시까지

신청방법: 구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프로그램 신청

신청하기 QR >

교육비: 무료

문의: ☎ 070-7775-6549

구리시가족센터 GURI FAMILY CENTER

Gyeonggi đã giải quyết 79% số trường hợp nợ lương được tiếp nhận...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ũng có thể nộp đơn.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đang chịu thiệt hại do bị nợ lương có thể yêu cầu tỉnh Gyeonggi giải quyết. Tỉnh Gyeonggi đang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nợ lương của người lao động thông qua “Trung tâm Tiếp nhận Khiếu nại về Bất công trong Hợp đồng Thầu Gyeonggi”.

Đặc biệt, tỉnh Gyeonggi cho biết từ tháng 1 đến tháng 7 năm nay, trong tổng số 77 vụ khiếu nại về nợ lương và thanh toán tại các công trường xây dựng trong tỉnh (tổng số 1,861 triệu won), đã giải quyết được 58 vụ, tương đương 1,482 triệu won. Đây là một kết quả ấn tượng khi đã xử lý khoảng 79% tổng số khiếu nại về số tiền nợ.

So với cùng kỳ năm ngoái (từ tháng 1 đến tháng 7 năm 2024), số vụ tiếp nhận đã tăng 36 vụ (từ 41 vụ lên 77 vụ), số vụ được giải quyết tăng 40 vụ (từ 18 vụ lên 58 vụ). Chính sách “Phòng ngừa nợ lương kiểu Gyeonggi” do tỉnh Gyeonggi triển khai nỗ lực giải

quyết vấn đề nợ lương của những người tham gia công trình xây dựng bằng cách tiến hành điều tra tích cực khi có khiếu nại về nợ lương và kiểm tra đột xuất các công trường.

Ngoài ra, không phân biệt giữa công trình do nhà nước đầu tư và công trình tư nhân, họ tiến hành điều tra kỹ lưỡng để giải quyết vấn đề nợ lương, đồng thời tập trung thực hiện các hướng dẫn phòng ngừa nợ lương, hòa giải, thuyết phục và điều chỉnh giữa các bên thông qua sự trung gian của tỉnh Gyeonggi. Bên cạnh đó, tỉnh Gyeonggi hiện không chỉ dừng lại ở việc xử lý hậu quả mà còn đang mở rộng các chính sách tập trung vào phòng ngừa nợ lương.

Tuy nhiên, khi nộp đơn khiếu nại về việc nợ lương, bạn cần chắc chắn rằng công ty xây dựng có trụ sở chính tại tỉnh Gyeonggi. Một quan chức của tỉnh Gyeonggi cho biết: “Nếu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không nhận được lương, họ cũng có thể yêu cầu tỉnh

Gyeonggi giải quyết. Chúng tôi sẽ nỗ lực kiểm tra kỹ lưỡng và giải quyết nhanh chóng để không ai phải chịu khổ vì nợ lương. Đồng thời, chúng tôi sẽ làm hết sức để bảo vệ quyền lợi của công nhân xây dựng và nâng cao tính công bằng cũng như uy tín chung của ngành xây dựng.”

Các hành vi không công bằng của các công ty xây dựng tổng hợp có trụ sở tại tỉnh, như nợ lương, có thể được báo cáo qua Internet hoặc điện thoại tại “Trung tâm Tiếp nhận Khiếu nại về Bất công trong Hợp đồng Thầu” (truy cập trang web Cơ quan Hành chính tỉnh Gyeonggi > Mục khiếu nại > Khiếu nại về Bất công trong Hợp đồng Thầu).

Báo cáo nợ lương theo Hợp đồng Thầu qua điện thoại: 031-8030-3842, 3844, 3848

Báo cáo chậm thanh toán chi phí máy móc xây dựng qua điện thoại: 031-8030-4142

〈한글 기사 2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Хэт халалтад ядарсан гадаад оршин суугчид ч оролцох боломжтой

Гёнгги аймгийн хөтөлбөрүүд 외국인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의 프로그램 3가지 안내

Гэр бүлтэйгээ хамтдаа одтой шөнийн зуслан

Гёнгги аймгийн Насан туршийн боловсролыг дэмжих хүрээлэнгийн Гёнгги аймгийн Ирээдүйн Боловсролын Янпён кампус (Янпён гүний Ёнмун мён нут агт байрладаг) нь 9-р сарын 27–28 болон 10-р сарын 25–26-нд нийт 2 удаа, амралтын өдрүүдэд 1 шөнө 2 өдрийн хөтөлбөрөөр ‘Гэр бүлтэйгээ хамтдаа одтой шөнийн зуслан’-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на гэж мэдэгдээд, оролцогчдыг эхний бүртгүүлсэн дарааллаар бүртгэж байна.

Оролцогчдын зорилтот бүлэг нь цэцэрлэгийн насны хүүхэд, бага болон өсвөр насны хүүхэдтэй Гёнгги аймгийн иргэдийн гэр бүлүүд байх бөгөөд бүртгэл нь 8-р сарын 11-нээс 20-ны хооронд Гёнгги аймгийн Насан туршийн боловсролыг дэмжих хүрээлэнгийн вэбсайт дээр явагдана. Оролцох төлбөр бүрэн үнэгүй бөгөөд нэг удаагийн хөтөлбөрт 15–20 гэр бүл хамрагдах боломжтой.

Гёнгги аймгийн Ирээдүйн Боловсролын Янпён кампусыг түшиглэн Ёжу хотын Сэжон их хааны бунхан, Янпён гүний Жунмисан одон орон судлалын төв зэрэг түүх ба байгаль хосолсон газруудад төрөл бүрийн дадлага, туршлаг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ана.

Хоёр дахь өдөр нь гэр бүлийн харилцаа,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лыг сэдэв болгосон бүтээлч дадлагын хөтөлбөр болон мэргэжлийн чиг баримжаа төлөвлөх үйл ажиллагаа үргэлжлэх юм.

Гёнгги Энх тайвны талбайн зүлгэн дээрх кино наадам

Гёнгги аймаг нь 8-р сарын 16-наас 9-р сарын 7-ныг хүртэлх хугацаанд Гёнгги аймгийн захиргааны хойд байрны Гёнгги Энх тайвны талбайд every Saturday, Sunday нийт 8 удаа ‘2025 оны Гёнгги Энх тайвны талбайн зүлгэн дээрх кино наадам’-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на.

8-р сарын 23-нд ‘Гал сөнөөгч’ нэртэй киног үзүүлнэ. Үзэхийн өмнө хөдөлгөөнт галы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ршлагын машин ашиглан галы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дадлага хийх, мөн зүрх судасны амьсгал сэргээх (CPR) сургалтын буланд оролцох боломжтой.

Үүний дараа ч гэсэн дараах киног долоо хоног бүр үзүүлнэ: ‘CODA’, хүүхэдтэй кино ‘Кунг Фу Панда 4’, ‘Супер Бэд 4’, мюзикл кино ‘Винка’, мөн ‘Литтл Форест’.

Ялангуяа долоо хоног бүрийн бямба гаригт оройн 18:00 цагаас, ням гаригт оройн 17:00 цагаас шидэт үзүүлбэр, хөгжим, бүжиг зэрэг төрөл бүрийн тоглолт болох юм. Киног тоглолт дууссаны дараа оройн 19:30 цагаас үзүүлнэ. Хэн ч нэмэлт үзвэрийн төлбөр төлөхгүйгээр оролцох боломжтой. Тав тухтай үзэхийн тулд эхний ирсэн хүмүүсийн дарааллаар газрыг үнэгүй түрээслэхээр бэлтгэсэн байна.

Дөрвөн төрлийн ойн эмчилгээний хөтөлбөр

Гёнгги аймаг нь халуун наранд цохиулахгүйгээр

ойд бие, сэтгэлээ сэргээх боломжийг олгох үүднээс Капёнгийн Жажхянгийн ногоон ой зэрэг 4 газарт ‘Ойн эмчилгээний хөтөлбөр’-ий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айна.

Ойн эмчилгээний хөтөлбөрийг Капёнгийн Жажхянгийн ногоон ой (стресс ба зөрчлөө намжаах хөтөлбөр), Почонгийн Ханүл Араэ эмчилгээний ой (сэтгэл заслын хөтөлбөр), Янпёнгийн Ёнмунсан эмчилгээний ой (ойд эмчилгээний хөтөлбөр), Дундучон эмчилгээний ой (төрөл бүрийн ойн туршлагын байгууламж ажиллуулдаг) зэрэг 4 газарт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айна. Ойн бясалгал, эрүүл мэндийн алхалт зэрэг төрөл бүрийн байгальд суурилсан хөтөлбөрөөр иргэдэд амралт, сэтгэл санааны тайвшралыг олгож байна.

Дөрвөн ойн эмчилгээний газрууд бүгд өөр өөрийн онцлог, давуу талтай тул гайхалтай туршлагыг мэдрэх боломжтой.

Ойн эмчилгээний хөтөлбөрт оролцохыг хүссэн иргэд нь тус бүрийн эмчилгээний ойн вэбсайт эсвэл утсаар урьдчилан захиалж оролцох боломжтой. Зардал нь ихэнхдээ үнэгүйтэй ойролцоо байдаг. Гэхдээ эмчилгээний ойн тус бүрт зардал, ажиллах цаг, захиалах арга зэрэг ялгаатай тул оролцохыг хүссэн хүн бүрийг ашиглахын өмнө утсаар лавлагаа авах эсвэл тус бүрийн ойн вэбсайтаас мэдээллийг шалгахыг зөвлөж байна. 〈한글 기사 6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이중언어로 자긍심 높이고, 문화 경험!

남양주시가족센터,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및 다문화체험 진행

남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주연)는 지난 8월 23일 센터 한국어교실에서 ‘2025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이중언어교실, 니하오! 중국어’ 상반기 수업을 마무리하며 이중언어말하기대회와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관내 중국 다문화가족 9가정 자녀 11명이 참여했다. 아동들은 상반기 동안 배운 중국어를 바탕으로 무대에 올라 자신감 있게 발표를 선보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전통의상체험과 다문화 만들기체험 등 다문화 활동이 함께 진행되어 아이들이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부모는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중국어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

니 정말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도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양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상반기 동안 성실히 수업에 참여한 아동들이 중국어로 또렷하게 발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이중언어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중언어교실 '니하오! 중국어'는 남양주시가족센터가 주관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우고 익히며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송하성 기자



물맑음수목원, 남양주 가치 제고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자리매김

남양주시는 물맑음수목원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년 대표 웰니스 관광지’ 15개소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을 결합한 개념으로, 자연 속에서 심신을 회복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관광 형태를 의미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물맑음수목원은 ‘건강·치유·힐링’ 중심의 웰니스 관광 명소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더불어 경기도로부터 △국내외 홍보 및 관광 상품화 지원 △맞춤형 컨설팅 △운영 역량 강화 교육 △웰니스 관광 페스타 참여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김학철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물맑음수목원이 웰니스 관광지로 인증받아 남양주의 치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물맑음수목원 누리집(<https://nyj.go.kr/forest/index.do>)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팀 (031-590-407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취업지원기관 탐방 & 취업특강

1 모집요강

- 모집대상 :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15명
- 참여일시 : 2025.09.17.(수) 10:00~13:00
- 신청일시 : 2025. 09. 12.(금) 까지

2 프로그램

- 장소: 남양주일자리센터
- 내용: 취업지원기관 탐방 및 취업 역량강화 특강
- 비용: 무료
- 접수: 방문/전화접수
- 문의: 031-556-8212

3 프로그램 혜택

- 일자리센터 연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지원
- 취업응원물품 제공

강·약점 파악하여 학습역량 UP! 성적 UP! 학습코칭

일정

2025년 9월~11월
-9월: 진단검사 및 해석상담
-10월: 1차 학습코칭
-11월: 2차 학습코칭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초등 4학년~고등 2학년)
*다문화·외국인·난민가족 자녀 참여 가능

내용

①학습역량 진단검사 및 개별 해석상담 1회
②학습 동기부여 및 학습 전략 코칭 2회
*연령별 4개그룹 편성, 그룹코칭 진행

장소

남양주시가족센터, 참여자 가정(비대면)

신청 ~9/10(수)까지

① 가족센터(패밀리넷) 홈페이지 로그인
② 참여마당-프로그램신청-경기도/남양주시
③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코칭' 신청하기

문의

031.556.8211
가족생활팀

Đào tạo điều dưỡng viên chăm sóc (yoyang bohosa) là người nước ngoài chính thức được triển khai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안내

Ở Hàn Quốc chính thức triển khai chế độ đào tạo người nước ngoài trở thành điều dưỡng viên chăm sóc (yoyang bohosa). Bộ Tư pháp và Bộ Y tế - Phúc lợi mới đây đã công bố kết quả tuyển chọn cuối cùng các “Trường đại học đào tạo điều dưỡng viên chăm sóc người nước ngoài”.

Chế độ trường đào tạo này được thiết lập nhằm bổ sung nguồn nhân lực chăm sóc đang thiếu hụt trong nước, bằng cách chỉ định các trường đại học ưu tú tại địa phương trở thành “Trường đại học đào tạo điều dưỡng viên chăm sóc người nước ngoài”, và quản lý một cách hệ thống toàn bộ quy trình từ: ① thu hút du học sinh → ② vận hành chương trình cấp bằng → ③ lấy chứng chỉ điều dưỡng viên chăm sóc → ④ đến tuyển dụng.

Chính phủ đã thành lập hội đồng tuyển chọn gồm các chuyên gia dân sự, tiến hành thẩm định các trường đại học ứng cử được 13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cấp tỉnh giới thiệu và cuối cùng đã chọn ra tổng cộng 24 trường đại học làm “trường đại học đào tạo điều dưỡng viên chăm sóc người nước ngoài”. 24 trường đại học được chỉ định này sẽ vận hành chương trình đào tạo cấp bằng hộ lý thông qua khoa

chuyên trách dành cho du học sinh nước ngoài trong thời gian thí điểm 2 năm (2026–2027). Chương trình này bao gồm đào tạo điều dưỡng viên chăm sóc cũng như các khóa học tiếng Hàn phù hợp, được xây dựng theo hướng dẫn do Bộ Tư pháp và Bộ Y tế & Phúc lợi cung cấp.

Trường đào tạo được chỉ định có thể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đào tạo cấp bằng cho điều dưỡng viên chăm sóc (yoyang bohosa) từ học kỳ I năm học 2026, và được phép sử dụng tên gọi “Trường đào tạo điều dưỡng viên chăm sóc người nước ngoài” để tuyển sinh cho năm học 2026. Đặc biệt, các trường đại học được chỉ định làm trường đào tạo sẽ được hưởng những quyền lợi sau đây.

Nếu trường đào tạo mong muốn vận hành chương trình thích ứng sớm của Bộ Tư pháp hoặc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liên kết với trường đại học, thì sẽ được ưu tiên trong quá trình lựa chọn cơ quan vận hành. Ngoài ra, đối với du học sinh nhập học vào khoa chuyên trách của trường đào tạo, sẽ được nói lỏng điều kiện tài chính để cấp visa, cùng với các ưu đãi khác nhằm hỗ trợ việc đào tạo người nước ngoài trở thành nhân viên chăm sóc.

Chế độ này có ưu điểm là giúp người nước ngoài muốn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có thể giải quyết cùng lúc các thủ tục như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nhập học đại học, lấy bằng cấp và tìm việc làm. Tuy nhiên, nghề nhân viên chăm sóc tại Hàn Quốc là một công việc vất vả nhưng mức lương lại không cao, nên chưa thể biết trong thời gian tới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có phản ứng như thế nào.

Trong thời gian tới, Chính phủ sẽ tiến hành kiểm tra và đánh giá, sau đó sẽ quyết định có chuyển đổi chế độ “Trường đại học đào tạo nhân viên chăm sóc người nước ngoài” thành dự án chính thức hay không.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Jeong Seong-ho phát biểu: “Thông qua chế độ trường đại học đào tạo nhân viên chăm sóc người nước ngoà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địa phương trực tiếp đào tạo nhân viên chăm sóc cần thiết cho cộng đồng địa phương, từ đó có thể đóng góp lớn trong việc giải quyết tình trạng thiếu hụt nhân lực chăm sóc. Trong tương lai, chúng tôi cũng sẽ tiếp tục thúc đẩy đa dạng các chính sách nhằm đào tạo nhân tài cần thiết cho xã hội Hàn Quốc.”

〈한글 기사 21면〉

경기와국인SNS기자단

“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ต้องไม่เกิดขึ้นซ้ำอีก...การไม่ดำเนินการมาตรการ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จะส่งผลให้เกิดความสูญเสียเพิ่มขึ้น” 산업재해 예방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

ตั้งแต่ต้นปีนี้ เกิดเหตุ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เสียชีวิตจากอุบัติเหตุอุตสาหกรรมต่อเนื่อง ทำให้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 อี แจมยอง มีคำสั่งให้ทุกความ

พยายามอย่างเต็มที่เพื่อป้องกันไม่ให้เกิด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อีก เรามาดูกันใหม่ว่าเกิดอะไรขึ้นบ้าง?

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ที่เกิดขึ้นซ้ำๆ ในกลุ่ม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เมื่อเร็วๆ นี้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ในโรงงา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ของเกาหลีถูกมอบหมายให้ทำงานที่เป็นอันตราย และถูกส่งไปทำงานโดยไม่มีการ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ที่เหมาะสม ส่งผลให้มีผู้เสียชีวิตและบาดเจ็บสาหัสซ้ำแล้วซ้ำเล่า

เมื่อเดือนมิถุนายนที่ผ่านมา แรงงานชาวศรีลังกาเสียชีวิตหลังจากติดอยู่ในเครื่องเจาะที่ไซต์ก่อสร้างทางด่วนที่ดำเนินการโดยบริษัท POSCO E&C และเมื่อต้นเดือนสิงหาคม แรงงานชาวเมียนมาร์วัย 30 ปี ก็เกิดอาการหัวใจหยุดเต้นหลังจากถูกสันนิษฐานว่าถูกไฟฟ้าช็อตที่ไซต์ก่อสร้างทางด่วนอีกแห่งหนึ่ง

เมื่อต้นเดือนกรกฎาคม ที่ไซต์ก่อสร้างอพาร์ทเมนต์ในเมืองกุงมี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ซังเหนือ แรงงานรับจ้างรายวันชาวเวียดนามวัย 20 ปี เสียชีวิตหลังจากหมดสติเพราะอากาศร้อนจัด และในเดือนเดียวกัน ที่โรงงานแห่งหนึ่งในเมืองคิมโป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แรงงานชาวเมียนมาร์ก็หมดสติและเสียชีวิตหลังจากทำงานกะกลางคืน

อัตรา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พิ่มสูงขึ้นทุกปี

ปัญหาคือจำนวนผู้เสียชีวิตจาก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เพิ่มขึ้นทุกปี

จากข้อมูลของ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ห่งชาติของเกาหลี พบว่า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คิดเป็น 9.2% (85 คน) ของผู้เสียชีวิตจาก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ทั้งหมดในปี 2022, 10.4% (85 คน) ในปี 2023 และในช่วงครึ่งปีแรกของปี 2024 เพิ่มขึ้นเป็น 11.8% (47 คน) เมื่อเปรียบเทียบกับสัดส่ว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มีเพียงประมาณ 5% ของแรงงานทั้งหมด นั่น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ความเสี่ยงค่อนข้างสูงจะกระจุกตัวอยู่ในกลุ่ม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เพื่อแก้ไขปัญหเหล่านี้ จำเป็นต้องจัดทำระบบการจัดการ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ที่สอดคล้องกับลักษณะเฉพาะ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เช่น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ด้านภาษา ▲การปรับปรุงการศึกษา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การรับรองสิทธิในการปฏิบัติงานที่อันตราย และต้องนำไปปฏิบัติใช้จริง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 คิม ยองฮุน กล่าวว่า “สิ่งที่สำคัญที่สุดคือการสร้าง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ที่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ทำงานได้โดยปราศจาก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 และกล่าวว่า “เราจะตอบสนองด้วยนโยบายไม่ยอมรับการกระทำใดๆ ที่จะ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จะไม่ได้รับการยอมรับ

ปัญหานี้ทวีความรุนแรงขึ้นเรื่อย ๆ แต่ก็ยังไม่ได้รับการแก้ไขอย่างจริงจัง ดังนั้นในที่สุด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จึงได้เข้ามา

แทรกแซง 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 อี แจมยอง กล่าวในการประชุมคณะรัฐมนตรีเมื่อวันที่ 12 สิงหาคมว่า “จะมีอะไรสำคัญไปกว่าชีวิตมนุษย์?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ที่ไปเพื่อหาเลี้ยงชีพจะต้องไม่กลายเป็นสถานที่แห่งความตายโดยเด็ดขาด” พร้อมกล่าวเสริมว่า “เราต้องเอาชนะวงจร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ที่เกิดขึ้นซ้ำแล้วซ้ำเล่าให้ได้ และบริษัทที่ล้มเหลวใน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อย่างเหมาะสมจะ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ลงโทษอย่างรุนแรง”

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ยังกล่าวเพิ่มเติมว่า “หากมีผู้เสียชีวิตเพียงเพราะบริษัทไม่จัดมาตรการ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เพื่อหวังทำกำไรหรือลดต้นทุน ก็ไม่ต่างอะไรกับการฆาตกรรม” และชี้ว่า “การไม่ลงทุนในมาตรการ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เพียงเพื่อลดค่าใช้จ่ายควรทำให้บริษัทเหล่านั้น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ใหญ่กว่าต้นทุนเพื่อไม่ให้กล้าเพิกเฉยต่อ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อีก”

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ยังได้กล่าวถึง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 ความรุนแรง และ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ต่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ผู้ด้อยโอกาสทางสังคม โดยกล่าวว่า “เกาหลีถือเป็น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แบบที่ให้ความสำคัญกั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และการมีส่วนร่วม แต่เหตุการณ์ที่เกิดขึ้นเมื่อเร็วๆ นี้ยังไม่บรรลุถึงอุดมคตินี้” และได้นัดย้ำให้ “หน่วยงานที่เกี่ยวข้องดำเนินการ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เพื่อป้องกันไม่ให้เกิด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หรือ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ผู้ย้ายถิ่นฐาน หรือผู้เปราะบางซ้ำอีก และหากจำเป็น ต้องจัดทำมาตรการหรือปรับปรุงกฎหมายเพิ่มเติมให้เหมาะสมด้วย” <한글 기사 33면>

2025년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

9월 14일 일요일 오후 1시 ~ 5시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2층 강당 등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약국, X-ray, 소변/혈액 검사

접수기간 9월 1일(월요일) ~ 9월 13일(토요일)

접수인원 외국인주민* 50명 (선착순/ 완료시 조기 마감)
*미등록 체류자, 건강보험 미적용자, 남양주 거주자

준비물품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복사/캡처본도 가능)

- * 검사 진행 후 결과 확인 및 의사 면담을 위해 대기 바랍니다.
- * 노동자 본인이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 진료과목은 의료진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진료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배려 부탁드립니다.

서울아산병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지구별에서
우리들하나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2
Tel. 031-594-5821

2025年 首尔峨山医院医疗志愿者活动

9月14日 周日下午一点~五点
南杨州市外国人福利中心2层讲堂等

诊疗项目 家庭医学科, 药店, X-ray, 尿检/血检

报名时间 9月1日(周一) ~ 9月13日(周六)

申请对象 外国人居民*50人 (按先后顺序, 额满截止。)
*未登录滞留者, 无健康保险者, 南杨州居住者

准备物品 护照或者外国人登记证 (复印件/截图照片也可)

- * 进行检查后请稍作等待以确认结果及与医生会谈。
- * 劳动者本人需亲自到中心访问后申请。
- * 诊疗项目有可能会根据医疗队伍的临时情况有所变动。
- * 本次诊疗旨在帮助就医困难的移住民, 请多多谅解。

서울아산병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지구별에서
우리들하나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2
Tel. 031-594-5821

Taong 2025 Serbisyon medical ng Seoul Asan Hospital

Ika-14 ng Sep, Linggo 1:00~5:00pm
Namyangju Migrant Welfare Center
2nd floor Auditorium, atbp.

Mga item sa medical na paggamot Gamot sa pamilya, Pharmacy, X-ray, Urine test at Blood test

Panahon ng aplikasyon Sep 1 (Lunes) hanggang Sep 13 (Sabado)

Bilang ng mga magpapareserba Mga dayuhang residente 50 katao (First come, first served)
*Mga hindi rehistrado, Mga walang health Insurance, Residente ng Namyangju

Mga kailangang ihanda sa pagpapagamot Passport at alien registration card (Maaari din ang kopya o kuha sa inyong gallery photo)

- * Pagkatapos ng pagsusulit, mangyaring maghintay upang suriin ang mga resulta at magpakita sa doctor.
- * Ang mga magpapasuri ay kailangang bumisita ng personal sa center at mag-applay
- * Maaaring magbago ang mga patakaran sa paggamot depende sa kondisyon ng medikal na namamahala.
- * Mangyaring maging maalalahanin sa mga nangangailangan ng medical na paggamot.

서울아산병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지구별에서
우리들하나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2
Tel. 031-594-5821

Năm 2025 Bệnh Viện Seoul Asan Khám Bệnh Miễn Phí

Chủ nhật ngày 14/9 vào lúc
1 giờ chiều~5 giờ chiều
Tầng 2 Trung tâm phúc lợi
người nước ngoài thành phố Namyangju

Nội dung điều trị Y học, hiệu thuốc, X-quang, xét nghiệm nước tiểu/máu

Thời gian nhận hồ sơ 1/9 (Thứ hai) - 13/9 (Thứ bảy)

Số lượng người Người nước ngoài* 50 người
(Theo thứ tự người đăng kí trước, đủ số người đăng kí sẽ không nhận nữa)
*Những người lưu trú chưa đăng ký, những đối tượng không có bảo hiểm y tế, người đang lưu trú tại Namyangju

Hồ sơ cần chuẩn bị Hộ chiếu hoặc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bảng photo cũng được)

- * Vui lòng chờ đợi các bác sĩ xác nhận kết quả và phỏng vấn sau khi tiến hành kiểm tra.
- * Người lao động trực tiếp đến trung tâm để đăng kí.
- * Các hạng mục điều trị có thể thay đổi tùy thuộc vào hoàn cảnh của đội ngũ y tế.
- * Ưu tiên cho người không có visa và người cần điều trị.

서울아산병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지구별에서
우리들하나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2
Tel. 031-594-5821

포토뉴스

남양주 외국인주민 궁금증 해소 '현장간담회' 개최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영)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8월 17일 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0여명의 외국인주민들이 참여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교육운영 및 평가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체류자격과 출입국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송하성 기자

남양주시,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남양주시는 22일 시청 여유당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경기도 최초로 법률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취약계층의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의 직접 방문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읍·면·동 주민센터와 법률구조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공단 변호사가 지원 대상자와 연결돼 법률상담과 지원 절차를 안내할 수 있게 됐다.

송하성 기자

Программы Кёнгидо, в которых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уставшие от жары 외국인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 프로그램 안내

Звёздный лагерь с семьёй

Кёнгидо институт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ампус буду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Янпхёне (расположен в уезде Янпхён, посёлок Ёнмун), проведёт «Звёздный лагерь с семьёй» дважды — 27–28 сентября и 25–26 октября, по программе «выходные 1 ночь 2 дня». Приём участников идёт в порядке очередности.

Участвовать могут семьи жителей Кёнгидо с детьми детского возраста, учениками начальной и средней школы.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на сайте Института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ёнгидо с 11 по 20 августа. Участие полностью бесплатное, в каждой смене будет 15–20 семей.

Программа пройдёт на базе кампуса буду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Янпхёне, а также в исторических и природных местах, таких как мавзолей Великого Седжона в Ёчжу и астрономическая обсерватория Чун

гмисан в Янпхёне.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будут проведены креативные занятия и карьерн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посвящённые семей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Кинофестиваль на траве на площади мира Кёнги

С 16 августа по 7 сентяб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ёнгидо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Кинофестиваль на траве на площади мира Кёнги» в северном здани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инции, каждую субботу и воскресенье — всего 8 раз.

23 августа будет показан фильм «Пожарный». Перед сеансом можно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ожарно-спасательном обучении и тренировке по сердечно-лёгочной реанимаци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ередвижного учебного автомобиля.

Также каждую неделю будут показаны фильмы: «CODA», анимации «Кунг-фу Панда 4», «Гадкий Я 4», мюзикл «Вонка» и «Маленький

лес». Особенно по субботам с 18:00, а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с 17:00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представления в жанрах магии, музыки, танца и других. Фильмы будут начинаться после концертов, в 19:30.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с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без платы за вход. Для удобного просмотра первые пришедшие с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ить коврики для сидения.

4 лесн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оздоровления

Чтобы помочь восстановить тело и душу в прохладе леса,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проводит «Программу лесного оздоровления» в четырёх местах, включая лес Чатхянги Пурунсуп в Капхёне.

Программы проходят в:

- Чатхянги Пурунсуп в Капхёне (снятие стресса и разрешение конфликтов),
- лес «Под небом» в Почхоне (программа исцеления души),

- лес оздоровления Йонгмунсан в Янпхёне (лесная терапия),
- лес оздоровления в Тонгдучхоне (разнообразные лесные активности).

Программы включают медитацию в лесу, прогулки для здоровья и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основе природы, предлагая жителям отдых и утешение.

Все четыре леса обладают своими особенностями и преимуществами, что позволяет испытать удивитель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необходимо заране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через сайт каждого «леса оздоровления»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Стоимость участия в основном близка к бесплатной. Однак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ста могут отличаться цена, время работы и способы бронирования, поэтому перед посещением необходимо уточнить информацию на сайте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한글 기사 6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8월 23일, 광주 장촌체험마을에서 아버지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아빠-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춘 맞춤형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광주시가족센터는 매년 아버지와 자녀 간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광주시양성평등기금사업의 지원을 받아 ‘아빠-자녀 관계개선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산채나물 피자 만들기 ▲해시리떡 만들기 ▲생태체험(다슬기 잡기) ▲보물찾기 등으로, 참여 가족들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고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한 참여 가족은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생태체험을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며 “프로그램을 운영해 준 센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양육에 관심은 있지만 실제 방법을 모르거나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이 소통의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가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경기도,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지역봉사회가 위탁 운영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이다.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가족생활 교육, 지역 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가족 친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송하성 기자

광주시보건소, 여름방학 구강보건 프로그램 진행



광주시보건소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하는 ‘반짝반짝 치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치아 건강 이어 Dream’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25개 기관 67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구강 보건교육 ▲구강 내 세균 현미경 관찰 ▲구강질환 예방 서비스(구강검진·불소도포·스케일링 등) ▲올바른 양치법 실습 ▲치실 사용법 시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올바른 치아 관리 방법을 익혔다. 특히, ‘반짝반짝 치아 교실’은 꾸준한 참여 수요와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여름방학뿐 아니라 겨울방학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가족이 방학 기간에도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해 구강질환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치아 건강 이어 Dream’은 기존의 보건소 방문형 프로그램에서 올해부터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로 구강건강 전문요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웠던 지역 아동센터 15개 기관 374명의 아동이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송하성 기자

外国人养老护理员培养制度正式实施

在韩国正式实行培养外国人养老护理员制度。

法务部和保健福利部最近公布了“外国人养老护理员培养大学”的最终选定结果。

该制度是为了确保国内不足的看护人力，将地方优秀大学指定为“外国人养老护理员培养大学”，并通过①吸引留学生→②运营学位课程→③取得护理员资格→④就业的全过程，进行系统管理。

政府组建了包括民间专家在内的选定委员会，对13个广域地方自治团体推荐的候选大学进行审议，最终选定了24所大学为培养大学。

被指定为培养大学的24所大学将在2年的试点期间(2026~2027年)通过外国留学生专门学科开设护理员培养学位课程。该课程将根据法务部和保健福祉部提供的指导方针，包含针对性的韩语教育和护理员专业培训。

从2026学年度第一学期起，这些大学可以正式开设养老护理员培养学位课程，并能以“外国人养老护理员培养大学”的名义招收2026学年度的新生。

特别是被指定为培养大学的学校将享受以下优惠。

若学校希望运营法务部的“早期适应项目”或“社会融合项目”大学联结课程时，在运营机关选定过程中可获得优待，对进入培养大学专门专业的留学生，放宽签证发放的财政条件等，为培养外国人养老护理员提供优惠。

该制度有利于想在韩国工作的外国人一次性解决入境韩国、大学入学、学位取得、就业等过程。但是在韩国，养老护理员这个职业工作辛苦、工资不高，因此不知道今后外国人会有什么反应。

今后，政府将通过检查和评价，决定是否将“外国人养老护理员培养大学”制度转换为正式项目。

法务部长官郑成浩(音)表示：“通过外国人养老护理员培养大学制度，地方大学直接培养地区社会所需的养老护理员，有望为解决照顾人力难问题做出巨大贡献”，“今后也将推进多种培养韩国社会所需人才的政策”。〈한글 기사 35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지원

다문화청소년상담

• 감정 조절의 어려움
• 가족/친구 등 대인관계 문제
• 진학 및 진로 고민

대상자

【다문화 아동·청소년 7세~24세】

- 다문화가족 자녀
- 중도입국자녀
- 외국가족 자녀
- 난민가족 자녀

센터내방 상담

【개인상담: 주 1회 50분 10회기】

- 장소: 광주시가족센터 상담실
- 시간: 주중 10시~17시(개별조율)
- 신청: 상시모집

기관방문 상담

【상담을 원하는 다문화 학생이 있는 학교 또는 기관을 찾아가는 상담】

- 장소: 요청기관 상담실
- 진행: 개인상담 10회기
- 시간: 주중 수업시간(기관별조율)
- 기간: 학개종 진행
- 신청: 진로설계 담당자 문의

문의

- 전화: 070-4706-3617
- 진로설계 담당자

광주시가족센터

Система подготовки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ачестве сиделок официально запуска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ыбрало «университет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иностранных сиделок» для воспита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уходу за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В Южной Корее официально запускается система подготовки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ачестве сиделок.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недавно объявили оконча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отб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о подготовке иностранных сиделок».

Эта систем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восполнение нехватки работников по уходу в стране: ведущие региональные университеты назначаются «университетам и по подготовке иностранных сиделок», где весь процесс — от привле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①) до ведения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②), получ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сиделки (③)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④) — проходит под системным контрол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формировало комиссию с участием независимых экспертов, рассмотрело кандидатуры университетов, рекомендованных 13 крупными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и в итоге выбрало 24 университета.

Эти 24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значенные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подготовки сиделок», в течение двухлетнего пилотного проекта (2026–2027 гг.) будут вест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факультеты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с программой получения степени в области ухода. В программу войдёт обучение по уходу за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а также адаптированный кур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тодическими рекомендаци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 1-го семестра 2026 учебного года университеты смогут официально открывать программы подготовки сиделок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звание «университет подготовки иностранных сиделок» при наборе студентов. Назначенные университеты получают следующие привилегии.

При желани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ах ранней адаптации или интеграции иностранцев они будут иметь преимущество при отборе операторов;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поступающих на такие факультеты, будут смягчены финансовые требован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визы;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льготы для поддержки подготовки иностранных сиделок.

Система удобна тем, что иностранцы, желающие работать в Корее, могут одновременно решить вопросы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поступления в университет, получения диплома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Однако профессия сиделки в Корее считается тяжёлой работой с невысокой зарплатой, поэтому пока неизвестно, как на это отреагируют иностранцы.

В будущ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едёт проверки и оценки, после чего примет решение о том, станет ли эта система постоян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ой.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Чон Сонхо заявил: «Мы ожидаем, что благодаря системе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одготовки иностранных сиделок» региональные университеты смогу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готовить необходим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уходу для своих сообществ, что существенно поможет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нехватки кадров. Мы и дальше будем активно проводить политику по подготовке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обходимых корейскому обществу». Иностранные SNS-журналисты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Papaaya Story является оператором программы иностранных SNS-журналистов Кёнгидо 2025 года.)

Блог Нейвер <https://blog.naver.com/ggforsns>Фейсбук <https://www.facebook.com/ggforsns>Инстаграм <https://www.instagram.com/ggforsns>〈한글 기사 35면〉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양한가족 생애맞춤 프로그램

예비학부모교육 참여 학부모 모집

활동내용

초등학교 선생님이 직접 알려주는 우리 아이 학교생활

단회기

09.13.(토) 10:00~12:00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

초등학교 입학 전 꼭 준비해야 할 것들, 요즘 초등학교는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아이가 입학 전 길러야 할 것들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 '부모님'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분 중 한 분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행장소 : 경기광주 통미로 52번길 19, 광주시가족센터 2층

참여대상

7세~8세(2019년생~2018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15명

1순위 신규참여자정 (2024, 2025 생애맞춤 미참여자정) 2순위 선착순

신청기간

2025.08.22.(금) ~ 2025.09.08.(월)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아이디로 신청

센터 홈페이지 접속

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예비학부모교육' 신청

[필수사항]

프로그램 참여 확정 후 취소 및 당일 불참 시, 추후 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수의 참여자가 신청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참여 확정 연락은 꼭 받아주세요!

[문의사항]

가족성장팀 (☎ 070-4706-3628)



광주시가족센터





다양한가족 생애맞춤 프로그램

진학과정설명회 참여 학부모 모집

활동내용

고등학교 선생님이 직접 알려주는 우리 아이 학교생활

단회기

09.13.(토) 14:00~16:00

우리 아이 중·고등학교입학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

중학교 생활의 이해, 고교학점제의 이해,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징,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다문화가족
중·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 '부모님'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분 중 한 분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행장소 : 경기광주 통미로 52번길 19, 광주시가족센터 2층

참여대상

2014년생~2012년생자녀를 둔 다문화·외국인가정 학부모 15명

1순위 신규참여자정 (2024, 2025 생애맞춤 미참여자정) 2순위 선착순

신청기간

2025.08.22.(금) ~ 2025.09.08.(월)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아이디로 신청

센터 홈페이지 접속

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진학과정설명회' 신청

[필수사항]

프로그램 참여 확정 후 취소 및 당일 불참 시, 추후 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수의 참여자가 신청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참여 확정 연락은 꼭 받아주세요!

[문의사항]

가족성장팀 (☎ 070-4706-3628)



광주시가족센터



지역사회와 이주민, 교류의 장

퇴촌청소년문화의집, 글로벌가족캠프 개최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글로벌 가족 캠프’를 개최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프에는 일본·중국·베트남·우간다·요르단·몽골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과 청소년 및 가족 등 총 11개 팀이 함께해 특별한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모집 시작 47초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유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한 ▲입국 심사 ▲세계 놀이터 ▲세계 요리 캠프 ▲세계 야시장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전통 놀이와 음식을 체험하며 생생한 문화를 접했고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를 직접 맛보고 즐기며 세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넓혔다. 프로그램은 ‘입국

심사’를 시작으로 국가별 부스를 돌며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세계 놀이터’에서는 전통 놀이를 배우고, ‘세계 요리 캠프’에서는 직접 음식을 만들고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열린 ‘세계 야시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어우러져 요르단 전통춤을 함께 추며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참가 학부모는 “퇴촌 아이들이 해외 문화를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할 줄 몰랐다”며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문화를 배우고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어 기뻐다. 퇴촌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한국 가족을 만난 기분”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주민 소통과 화합 새로운 거점

광주시 초월읍 신월2리 마을회관 준공해



광주시 신월2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마을회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 23일 열린 준공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기관사회 단체장, 마을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번에 신축된 신월2리 마을회관은 총면적 304.92㎡, 지상 2층 규모로 주민 공동 이용 공간과 체력 단련실,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복지 활동을 향유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광 신월2리 이장은 “기다림 끝에 마을의 보금자리가 완성됐다”며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며 더 따뜻하고 활기찬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새 마을회관은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당부

광주시, 시민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

광주시는 20일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2주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예방 수칙은 일상 속 기침 예절을 지키고(기침 시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의료기관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가장 높아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은 밀폐된 실내 행사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지역 내 감염 취약시설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코로

나19 감염관리 수칙을 안내하고 발생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내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주민들도 광주시의 당부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겠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 보호자, 방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는 등 감염 예방 수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 밖에 문의는 광주시보건소 감염병대응팀(031-760-8656)으로 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자녀진로설계

MZ들의 직업탐험대



모집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1, 2, 3학년

진행일정 2025.9.13.(토) 8:30~16:00

진행장소 한국잡월드 (성남시 분당, 집결 후 전세버스로 함께 이동)

신청기간 2025. 8. 13.(수) ~ 9.10.(수)

참여내용 청소년관 1부 / 개별 1개 체험 선택 / 10:00 - 11:00

체험 2개 청소년관 2부 / 개별 1개 체험 선택 / 11:20 - 12:20

검사 1개 진로 설계관 / 재능 스펙트럼 / 13:30 - 14:30

신청방법 [홈페이지]-[프로그램신청]-[직업체험신청] **자녀이름으로!**

문의전화 070-4706-3617 진로설계담당자



광주시가족센터



한의학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양평군,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위한 프로그램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한의학 건강증진 임신부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학 기반 건강관리 강의, 임신부 전용 필라테스 교육,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영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6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진행되며, 대상은 임신 16주 이상~32주 이하의 임신부다. 모집 인원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 15명(선착순)이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다. 신청은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접수”해야 하며, 신청 서류는 양평군청 홈페이지

지 공지사항(알림마당)에서 확인 할 수 있다. 031-770-3568

이번 건강교실은 양평군보건소 한의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교육 전문가, 임신부 전문 자격을 갖춘 필라테스 강사 등 전문 교육진이 참여해 임신 중 건강관리, 출산 준비 필라테스, 우울증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부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바른 정보와 신체활동을 통해 임신부와 태아 모두의 건강증진을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식중독 증상과 유사한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대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예방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꼼꼼히 씻는 손 씻기 실천 △음식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 △조리도구 및 식기의 청결 유지 △설사나 구토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 자제 등이다. 송하성 기자

가정 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양평군, 가정 보육 미취학 아동 과일 지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5년 가정 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미취학 아동에게 신선한 국내산 제철 과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어린이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과수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 급여를 수령 중인 미취학 아동이다. 단, 현재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을 이용 중이거나, 2025년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아동 1인당 6만 원 상당의 과일 꾸러미가 2025년 11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각 가정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아

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누리집 또는 친환경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가정 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과수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최근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익한 내용이 많이 전달됐다.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매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SNS계정(인스타그램, 유튜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申请说明

박송아教授 亲子教育 专题讲座
成功案例分享会
亲子游戏方法与身体活动指导

招生时间 2025. 8. 11. (一) 10:00~额满为止

参与对象 养育婴幼儿期子女的多文化20个家庭

咨询处 031)775-5957
070-7865-2277(家庭事业3组/유하나)

9/13(六) 一日野游
(박송아教授의 专题讲座)
时间: 2025. 9. 13.(六)
上午 10:00~11:30

1. 父母-子女 身体游戏活动
2. 两种 - 多种文化的理解
3. 分享结婚移民者的成功例子

父母教育特讲
(双语环境的重要性)
时间: 2025. 9. 17.(三)
下午 14:00~16:00
地点: 中心教室

双语使用方法及人权教育
时间: 2025. 9. 17.(三)
下午 19:00~21:00
地点: 各自家庭(非面对面教育)

라떼파파프로그램

아빠와 만드는 과일 찹쌀떡

일 정 9월 20일(토) 10:00/13:30

장 소 강상경기육아나눔터

모집 기간 8월 25일(월) 14시~9월5일(금) 마감시까지
초1~3학년 10:00(10가정) / 5~7세 13:30(10가정)

프로 그램 아빠와 과일 찹쌀떡 만들기(아빠님과 자녀1명 신청)
(아빠와 자녀 모두 양평군 가족센터에 회원가입)

접수 방법 양평군가족센터 홈페이지-회원가입-프로그램안내-프로그램신청
-라떼파파 아빠와 만드는 과일 찹쌀떡

문 의 경기육아나눔터전담원 070-7865-3322

일상을 함께하는 양평.길라잡이
양평군 가족센터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8월 19일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2층에서 플라워클래스 '피어나다' 수업을 시작했다.

'피어나다'는 '꽃이 피다', '꺼져가던 불이 다시 타오르다'는 의미처럼 회복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도우며,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새로운 관계 형성을 지향한다. 총 9회에 걸쳐 '나를 피우는 계절'이라는 테마로 운영될 예정이다.

첫 수업에서는 약간의 긴장감과 어색함 속에서도, 꽃과 식물을 매개로 한 자기표현과 다과 시간을 통한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품을 만들며 자신을 소개하고, 그룹 활동을 통해 공통점을 발견하는 등 소속감과 공동체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참여자 김 모 씨는 "내가 만든 작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내내 뿌듯하고 행복했다. 하원한 딸아이가 꽃을 보며 '너무 예쁘다'고 말해줘 더 큰 기쁨을 느꼈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병용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통해 일상 속 가족 간 소통을 확장하고, 다문화와 일반가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포용적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러한 경험이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적 커뮤니티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하남시가족센터 031-793-2993

김영의 기자

기초학습 다지고, 창의력 넓혀요

하남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여름방학 수업



하남시가족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창의융합 수업 프로그램을 센터 내 프로그램실에서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여름방학 동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학습 보충의 취지를 넘어 아이들의 학습 동기와 창의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융합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심플렉 놀이와 독해 활동이 결합한 만들기 수업과 함께 아이들이 새싹 캠페

이크를 만들어보는 체험이 이뤄졌다. 8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한글 원목 블록으로 단어를 만들고, 도미노 게임과 집 만들기 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협동하며 언어 감각과 사회성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는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간이 정수기 만들기, 화산 폭발 실험, 두들링 로봇 그림 그리기, 과자집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 속에 녹아드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체험 활동을 통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며 과학·언어·예술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아동 눈높이에 맞춘 창의융합 수업으로 '이해하는 복지'를 넘어 직접 체험하고 함께 성장하는 복지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사업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炎热夏天外国居民也可以参加的京畿道项目

与家人一起的星夜夏令营

京畿道终身教育振兴院京畿未来教育杨平校区(位于杨平郡龙门面)将于9月27日至28日和10月25日至26日共举行2次周末1晚2天的"与家人一起的星夜夏令营", 按先后顺序招募参加者。

参加对象是有幼儿园学生、小学生、青少年子女的京畿道居民家庭, 申请将8月11日至20日在京畿道终身教育振兴院官网进行。参加费全额免费, 每期招募15~20个家庭。

以京畿未来教育杨平校区为据点, 参与者将在骊州市世宗大王陵、杨平郡中美山天文台等历史和自然融合进行现场进行多种体验活动。

第二天以家庭间的沟通为主题, 将进行创意体验项目和职业规划活动。

京畿和平广场草坪电影节

京畿道将于8月16日至9月7日在京畿道厅北部厅舍京畿和平广场每周六·周日举行共8场"2025京畿和平广场草坪电影节"。

8月23日将上映电影《消防员》。

在观影前可体验移动消防安全体验车和心肺复苏术教育展位。

之后每周都将上映电影《健听女孩》、动画片《功夫熊猫4》、《神偷奶爸4》、音乐剧电影《旺卡》和《小森林》。

特别是每周六从晚上6点开始, 周日从晚上5点开始, 将举行魔术、音乐、舞蹈等多种类型的演出。电影将在演出结束后晚上7点半上映, 任何人都可以观看, 不收门票。为了方便观众舒适观影, 计划按先后顺序免费提供凉席租借。

4个森林治愈项目

京畿道为了让市民避暑, 在炎炎夏日中于森林中恢复身心, 在加平松香青翠林等4个地方运营"森林治愈项目"。

森林治愈项目在加平松香青翠林(缓解压力与冲突项目)、抱川天空下疗愈之森(心灵治愈项目)、杨平龙门山疗愈森林(森林疗愈项目)、东豆川疗愈之森(运营多种森林体验设施)等4个地方进行。通过森林冥想、健康散步等多种自然基础项目, 为道民们提供休憩与慰藉。

4处森林都有各自的特点和优点, 能带来惊人的体验。

希望参加森林治愈项目的道民可以通过各治愈森林官网或电话提前预约后参加项目。

费用大部分接近免费。但是由于每个治愈森林的费用、运营时间、预约方法等不同, 希望有意参与的人在使用前进行有线咨询或确认各治愈森林官网内的信息。

<한글 기사 6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경기도 온가족보듬사업의 역량을 키우고 실무 능력 향상

하남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역량 강화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경기도 가족서비스 기능강화사업 수행기관으로 사업의 인지도 제고와 도내 가족센터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과 1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25 경기도가족서비스 기능강화사업 온가족보듬사업 실무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의 온가족보듬사업 담당자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가족보듬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획

됐으며, 지역 접근성과 참여 편의를 고려해 가족센터 북부거점(구리시가족센터)과 경기 남부(하남시가족센터)로 나누어 운영됐다.

교육 내용은 단순한 지침 전달을 넘어 실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과 사업 운영의 모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온가족보듬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효과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위한 방법론 등을 실무자의 시각에서 다각도로 다루었다.

각 센터 담당자들은 그룹 토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노하우를 교류했다. 교육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배움의 시간이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또한, 이번 교육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각 지역 센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

망이다. 이를 통해 온가족보듬사업이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 지원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능강화사업 관계자는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들의 열정과 참여 덕분에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도내 가족센터 간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기도 내 가족센터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9월 4일은 경기도 가족 사업 종사자 소통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 9월 18일에는 인식개선교육이 'AI시대,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소통과 회복탄력성 키워주기'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31-793-2993

김영의 기자

문화예술 가족 체험

하남시가족센터, 협약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 한국연극협회하남지부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하남시가족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하남시가족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공연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상생의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김성두 한국연극협회 하남지부장은 "이번 협약이 하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또한, 두 기관이 서로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연극이라는 예술적 매개를 통해 하남시가족과 시민들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센터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31-793-2993

김영의 기자

경기도 내 가족사업 종사자들의 교류와 힐링, 함께해요!

2025년

경기도 가족사업 종사자 소통의 날

일시 및 장소

2025.09.04(목) 13:30~17:00 메가박스 하남 스타필드점

내용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공유, 힐링 프로그램(영화관람) 등

모집 대상

도(시군)공무원, 가족센터 종사자 300여 명

문의

하남시가족센터

가족서비스 기능강화팀 070-4106-8055



가족서비스 기능강화



하남시가족센터

25년 가족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AI 시대,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소통과 회복탄력성 키워주기



강사 최성에 박사

현) HD 행복연구소 소장 / HD가족 클리닉 센터장

방송 출연)
EBS <마더쇼크>, <교육이란 무엇인가> 자문 및 출연
KBS <가족 클리닉>, SBS <동상이몽2> 외 다수 출연
*한국의 4대 방송대상 수상 및 언론상 수상

저서)
『나와 우리 아이를 살리는 회복 탄력성』,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외 다수 집필
*교보 육아 서적 1위, 부모 필독서 선정

· 참여 대상
과녀 양육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300명

· 참가신청
참가비 - 무료 / 신청방법 - QR
(선착순 접수)



· 일시
2025년 09월 18일 (목)
10:00~12:00

· 장소
하남시청 별관 2층 대강당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
가족서비스 기능강화팀
070-4106-8055



가족서비스 기능강화사업



하남시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서부분소는 지난 8월 20일 평택시 관내 다문화·비다문화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양말목공예 리스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됐다.

30~50대 여성들이 주로 참여해 양말목을 활용한 발매트 만들기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한 참여자는 “이번 프로

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들과 가까워질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열리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내·외국인 간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로 상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9월 1일부터 평택사랑상품권의 구매 인센티브 및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상향으로 시민들은 월 구매 한도인 100만 원 기준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존 혜택보다 3만 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은 총 3만 2천여 개로, 이번 인센티브 상향은 지역 내 소비 진작은 물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인센티브 상향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 의회와 협력해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031-8024-3542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스트레스 쉼표 “여성들의 쉼과 치유의 자리”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8월 11일과 8월 25일 가사스트레스가 있는 기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가사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 ‘스트레스 쉼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평택복지재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8월에 진행된 ‘스트레스 쉼표’는 ▲8회기 여가문화 활동 ▲9회기 집단상담으로 구성됐다.

여가문화 활동에서는 ‘전통공예를 활용한 비녀 만들기’가 진행됐으며, 평택시 지역공방인 투비즈 공방과 연계해 비즈, 은, 자개 등을 활용한 전통 기법으로 비녀, 머리핀, 머리꽃이 등을 제작했다.

집단상담은 ‘아로마테라피’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천연 아로마 오일을 활용해 후각을 통한 심신 안정과 감정 환기를 경험하며,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탐색하고, 각자의 감정과 성향을 기반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이번 상담을 통해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 평소에는 해야 할 일과 주변의 기대에 눌려 감정을 억눌러왔는데,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라며 “서로 진심 어린 공감을 나누는 방식이 큰 힐링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가사노동은 힘들다고 말하거나 공감받기 어려운 영역이기에 그 스트레스가 깊을 수 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사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9월에는 ‘정리수납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새부 요리 프로그램

한(韓) 그릇 이야기

모집기간 : 2025.08.25.(월)10:00~ 마감 시까지

- 일시 : 2025.09.02.(화) ~ 2025.10.28.(화)
- 장소 : 평택시로컬푸드재단 2층 실습실 (경기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34)
- 대상 : 결혼이민자 20명
- 내용 : 한식 만들기 체험
- 신청 방법 : 센터 홈페이지
- 안내 사항 : 신규 대상자 우선
- 문의 : 통합지원팀 031-660-7473

신청 링크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글로벌 평택, 안녕? 해금아카데미

- 1. 운영일시 : 2025년 9월~11월 매주 화요일
- 2. 운영내용 : 해금 강습 및 연주
- 3. 비용 : 무료
- 4. 장소 : 평택시가족센터 서부분소
- 5. 문의 : 통합지원팀 031-660-7471

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라켓 워드 평택'

- 1. 운영기간 : 2025년 9월~11월 매주 목/금요일
- 2. 운영시간 : 13시부터 15시까지(2시간)
- 3. 운영내용 : 주 2회 2시간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
- 4. 운영장소 : 안중체육관(안현서로 4길, 30)
- 5. 회비 : 월 2만원
- 6. 문의 : 통합지원팀 031-660-7471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경기도내 건설현장 임금 체불, 경기도에 해결 요청해요

경기도, 건설현장 임금 체불 접수액의 79% 해결...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경기도에 해결을 요청해 보세요.

경기도는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특히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접수 총 77건(총 18억 6천 1백만 원) 가운데 58건, 14억 8천2백만 원을 해소했다고 밝혔어요. 체불 접수 규모(금액)의 약 79%를 해소한 놀라운 성과예요.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1월~7월) 대비 접수는 36건 증가(41건→77건), 해소는 40건 증가(18건→58건)한 수치예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형 임금체불 예방 정책’은

임금 체불 민원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관공사와 민간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며, 임금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경기도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와 설득, 조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경기도는 현재 단순한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체불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요.

다만 임금체불 민원을 제기할 때는 건설사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경기도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임

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임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돼요. 하도급 임금체불 관련 전화신고는 031-8030-3842, 3844, 3848이며 건설기계 대금체불 관련 전화신고는 031-8030-4142예요.

<중국어 하단, 베트남어 11면, 태국어 하단,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京畿道内建筑工地拖欠工资,可向京畿道申请解决...外国劳动者也可以申请

因拖欠工资而饱受痛苦的外国劳动者,请向京畿道申请帮助解决。

京畿道正在通过“京畿道转包不正之风举报中心”解决劳动者的工资拖欠问题。

特别是京畿道表示,今年1月到7月为止,在道内建设现场发生的工资、贷款拖欠受理共77件(共18亿6千1百万韩元)中,解决了58件 14亿8千2百万韩元)。这是解决拖欠受理规模(金额)约79%的惊人成果。

与去年同期 2024年1月~7月)相比,受理件数增加了36件 41件→77件),解除件数增加了40件 18件→58件)。

京畿道推进的“京畿道型工资拖欠预防政策”,一旦接

到拖欠工资的民怨,就积极调查,突击检查施工现场等,努力解决建设工程参与者的拖欠问题。

另外不分政府工程还是民间工程,通过彻底的调查解决拖欠工资问题,重点推进实施预防拖欠工资的指导方针,通过京畿道的调解促成当事人之间的协商和说服、协调等。除此之外,京畿道目前不仅仅是单纯的事后处理,还在扩大以预防拖欠为中心的政策。

不过,在提出工资拖欠申诉时,一定要确认建设公司是否是总部设在京畿道的企业。

京畿道相关人士表示:“如果外国劳动者也没有得到工资,可以向京畿道要求解决。为了不让任何人因拖欠工

资而受苦,将努力进行彻底的检查和迅速解决”,“为了保护建设劳动者的权利,提高整个建设产业的公正性和信赖性,将尽最大努力。”

对于拖欠工资等位于道内的综合建设企业的不公正行为可以通过网络向“转包不正之风举报中心(京畿道厅官网>信访举报>转包不正之风举报)”举报或电话举报。有关拖欠转包工资的举报电话为031-8030-3842、3844、3848,有关拖欠建设机械贷款的举报电话为031-8030-4142。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แรงในไซต์ก่อสร้างภายในจังหวัดยองก็ สามารถร้องขอให้จังหวัดยองก็ช่วยเหลือได้

จังหวัดยองก็, แก้ไขปัญหา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แรงที่ได้รับแจ้งแล้ว 79%...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สามารถยื่นคำร้องได้เช่นกัน

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กำลังประสบปัญหา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แรง สามารถร้องขอให้จังหวัดยองก็ช่วยเหลือได้

จังหวัดยองก็กำลังแก้ไขปัญหา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แรงของแรงงานผ่าน“ศูนย์รับแจ้งการทุจริตในการจ้างเหมาช่วงของจังหวัดยองก็”

โดยเฉพาะ จังหวัดยองก็ประกาศว่าเริ่มตั้งแต่เดือนมกราคมถึงกรกฎาคมปีนี้ มีการรับแจ้งปัญหา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แรงและค่าจ้างจากไซต์ ก่อสร้างภายในจังหวัดทั้งหมด 77 กรณี (รวมเป็นเงิน 1,861 ล้านบาท) และสามารถแก้ไขได้ 58 กรณี รวมเป็นเงิน 1,482 ล้านบาท ถือเป็นผลลัพธ์ที่น่าทึ่ง โดยสามารถแก้ไขปัญหา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แรงได้ประมาณ 79% (จำนวนเงิน) ของการรับแจ้งการค้างจ่าย

เมื่อเทียบกับช่วงเดียวกันของปีก่อน (มกราคม~กรกฎาคม 2024) พบว่าจำนวนการรับเรื่องเพิ่มขึ้น 36 กรณี (41กรณี→77 กรณี) และจำนวนคดีที่ได้รับการแก้ไขเพิ่มขึ้น 40 กรณี (18 กรณี→58 กรณี)

“นโยบายการป้องกัน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ในแบบจังหวัด

ยองก็” ที่จังหวัดยองก็ผลักดันอยู่นั้น หากมีการร้องเรียนเรื่อง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 ทางจังหวัด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อย่างจริงจัง และลงพื้นที่ตรวจงานก่อสร้างโดยไม่แจ้งล่วงหน้า เพื่อพยายามแก้ไขปัญหาการค้างจ่าย ค่าจ้างของผู้ที่มีส่วนร่วมในโครงการก่อสร้าง

นอกจากนี้ จังหวัดยองก็ไม่ได้แยกแยะระหว่างโครงการก่อสร้างภาครัฐและภาคเอกชน แต่ดำเนิ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 เพื่อแก้ไข ปัญหา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 พร้อมทั้งมุ่งเน้น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มาตรการสำคัญ เช่น การบังคับใช้แนวทางป้องกัน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 การไกล่เกลี่ยและเจรจา ระหว่างคู่กรณีผ่านการประสานงานของจังหวัดยองก็ รวมถึงการปรับแก้ปัญหาดังกล่าวอีกด้วย นอกจากนี้ จังหวัดยองก็ยังไม่ได้หยุด เพียงการจัดการปัญหาภายหลังเท่านั้น แต่กำลังขยายสู่การดำเนินนโยบายที่เน้นการป้องกัน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เป็นหลัก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มื่อมีการร้องเรียนเรื่อง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 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ให้แน่ใจด้วยว่าบริษัทก่อสร้างนั้นมีสำนักงานใหญ่

ตั้งอยู่ในจังหวัดยองก็ หรือไม่ เจ้าหน้าที่ของจังหวัดยองก็กล่าวว่า “แม้แต่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หากไม่ได้รับค่าจ้างก็สามารถขอให้จังหวัดยองก็ช่วยเหลือได้ เราจะพยายามตรวจสอบ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และแก้ไขปัญหา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เพื่อให้ไม่มีใครต้องได้รับความทุกข์จาก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 พร้อมเสริมว่า “เราจะพยายามอย่างเต็มที่เพื่อคุ้มครองสิทธิของแรงงานก่อสร้าง และเพื่อเพิ่มความเป็นธรรมและ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อสร้าง โดยรวม”

กรณีการกระทำที่ไม่เป็นธรรมของบริษัทก่อสร้างขนาดใหญ่ในจังหวัด เช่น 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 สามารถแจ้งเรื่องได้ทางอินเทอร์เน็ทผ่าน“ศูนย์รับแจ้งการทุจริตในการจ้างเหมาช่วง”(เว็บไซต์จังหวัดยองก็ > แจ้งเรื่องร้องเรียน > แจ้งการทุจริตในการจ้างเหมาช่วง) หรือแจ้ง ทางโทรศัพท์ สำหรับ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ในการจ้างเหมาช่วง โทร.031-8030-3842, 3844, 3848 และสำหรับ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เครื่องจักรก่อสร้าง โทร.031-8030-4142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8월 23일, 안성에 있는 무지개공방에서 2013년~2021년생 자녀를 둔 20가조를 대상으로 8월 가족놀이터 프로그램 ‘칠보공예 체험’을 진행했다.

무지개공방은 사회적기업이자 대한민국 명장인 남성숙 대표가 운영하는 전통공예 공간으로, 이번 체험에서는 ‘불의 예술’이라 불리는 칠보공예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와 자녀는 함께 색을 고르고 정성껏 작품을 빚어 동메달 목걸이와 풀벌 은메달을 완성했으며, 가마 속에서 빛나는 결과물은 참여 가족들에게 큰 호응과 만족을 끌어냈다.

애초 기획은 풀벌 은메달 제작이었으나, 남성숙 대표가 동메달 목걸이 제작을 무료로 지원해 참가자들이 기초 과정을 충분히 익힌 후 은메달 작업을 보다 수월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족들은 칠보공예의 매력을 깊이 체험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참여 가족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체험이었다”, “아이와 함께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전통공예라는 귀한 수업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가족놀이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통공예를 배우며 소통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함께 웃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족놀이터는 부모-자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으로, 매달 1~2회 운영되며 많은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9월에는 ‘캐릭터 바람뽀 만들기’와 ‘샤인머스켓 수확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평택시가족센터 가족교육팀(031-615-3965)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아이 눈높이 맞춘 독서융합 활동’ 진행

평택시가족센터, ‘조물조물 즐거운 구연동화’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동육아나눔터3호점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에 걸쳐 ‘조물조물 즐거운 구연동화’를 진행했다.

‘조물조물 즐거운 구연동화’는 평택시 관내 거주 21~22년생 아동과 보호자 10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키즈스쿨레와 함께 하는 독서융합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이번 독서융합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를 읽어주고 연계학습으로 공작 활동 및 과학실험까지 확장해 참여 아동의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아동과 부모가 함께 매주 다른 주제로 책을 읽으며 ‘계절-여름(테라리움 만들기), 식물-꽃(꽃 선캐처 만들기), 자연환경-재활용(휴지심 앵무새 만들기), 과학실험-화산 폭발(모형실험), 마인드 케어 감성-행복(네잎클로버 행운 부처 만들기)’ 등 연계 활동을 이어가 자연스럽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다양한 주제로 책을 읽고 재밌는 연계 활동을 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된 교육과정이 너무 좋았다”, “선생님께서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아이가 즐겁게 참여한 것 같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3호점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있는 각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상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노년기의 행복감 증진하는 집단상담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8월 20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평택서부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총 8회기에 걸쳐 ‘노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통합예술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푸드테라피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돕고,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 노년기 우울,불안 및 사회적 고립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1회기에서는 ‘만남과 마음 열기’라는 주제로 별칭 짓기와 자기소개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별칭에 담긴 의미와 집단상담에 대한 기대를 나누며 프로그램의 첫걸음을 열었다.

한 참여자는 “집에 혼자 있으면 쓸쓸한데,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다”라며 “상담을 통해 우울함과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내일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 늘 불안했는데, 이곳에 나오니 덜 불안해지고 함께하는 분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집단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이 예술 활동에서 성취감을 경험하고, 집단 내 공감적 소통을 통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노년기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적 갈등과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및 놀이,미술치료, 면접교섭상담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집단상담은 부부, 부모-자녀, 노인 등 다양한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31-647-3097

김영의 기자

평택시 전 지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하여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 평택시 전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계약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영의 기자

2025
경기홈
페스티벌

(경기 HOME Festival)
세계평화의 날 이민사회 축제

2025. 9. 21(일) 11시~17시
경기평화광장 (경기북부청사)

주제
"Making Home"

프로그램
기념식, 미술공연, 개그공연, 토크콘서트,
청소년 참여 댄스경연대회, 축하공연,
다문화어린이 합창단 주제공연 등

주최
경기도

주관
법무부

주관
(사)안산YWCA

주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경기홈 페스티벌
세계평화의 날 이민사회 축제

기념식
14시 40분~

입장 퍼포먼스

행사안내

내빈소개

인사말씀

주제공연

화합 세리머니

프로그램

시간	메인무대
11:00~11:30	'우리는 하나' 주제 미술공연
11:30~12:00	안산 소년소녀합창단 리운더스 공연
12:00~12:30	경기도 홍보대사 '올알스' 공연
12:30~13:00	네팔 무용단 전통무용 공연
13:00~14:20	K-POP 댄스경연대회 (5팀)
14:20~14:40	성남 아틀리드합창단 공연
14:40~15:00	화성시 다문화어린이합창단 공연
14:40~15:00	기념식 (개회사, 축사, 기념사, 다문화어린이합창단 합동공연, 세레머니)
15:00~15:30	'우리는 경기인 이민사회' 공감 토크 콘서트
15:30~16:00	완미화 공연
16:00~17:00	OBS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MC : 이창명 (브브걸 / 올랄라세션 / In A Minute / 이민정(심어게인2))

※ 상기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25 제3차
이민사회 정책네트워크 포럼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에 고려되지 않는 이주민,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2025. 9. 25. (목)
15:00 - 17:00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회의실

의정부시 추동로 140, 2층

참여신청
<https://bit.ly/2025제3차포럼>

발 표
최정규(다양성소통조정위원장,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토 론
김대권(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팀장)
김원규(경기도 이민사회국장)

문의

031-853-9347

gmhr@gmhr.or.kr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Gyeonggi Migrant Integration Support Center

제4회 한국문화다양성대상 공모

2025 KOREAN CULTURAL DIVERSITY AWARD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과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털정보서비스 '파파야스토리'는 사회 각 계에서 올바른 문화다양성 인식을 전파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전하고자 제4회 한국문화다양성대상 공모를 진행합니다. 문화다양성에는 이주민, 장애인, 노인 등의 모든 소수자와 개별문화를 포괄합니다.

공모자격
문화다양성을 위해 일 하는 기관, 단체, 개인

공모분야

분야	내용	인원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 및 단체장	본상 5명
광역의회	문화다양성 증진 의정을 펼치는 전국의 광역의회 및 의원	본상 5명
기초의회	문화다양성 증진 의정을 펼치는 전국의 기초의회 및 의원	본상 5명
사회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전파하는 시민단체 및 교육 관련자	본상 5명
문화증진	우수한 문화증진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전파하고 이를 확립한 기관 및 개인	본상 5명
대상	가장 뛰어난 문화다양성 활동을 펼친 개인 및 기관	1명
계	(대상 1명 및 분야별 본상 5명)	26명

시상내역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표창장

공모기간
2025년 8월 11일(월)~9월 30일(화)

응모방법
응모서류 작성 후 이메일(weloveasian@naver.com) 접수
응모서류는 전화문의 후 이메일 전달

결과발표
2025년 10월 10일(금) 예정

시상식
추후 안내

문의
아시아문화연구원 031-243-7688 / 파파야스토리 031-8001-0211

Equality, Not Sameness

주최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주관
PAPAYA STORY

후원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회

“합리적 소비와 저축 배워요”

평택시가족센터, 초등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동육아나눔터3호점은 지난 8월 4일부터 13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총 4회에 걸쳐 보드게임을 활용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관내 초등 아동(2017~2018년생) 1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금융 개념을 익히도록 기획됐다.

참가 아동들은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화폐의 필요성과 발달 과정 ▲금융의 의미와 다양한 금융기관 ▲신용의 개념과 중요성 ▲용돈 관리와 합리적 소비의 필요성 등을 배웠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 습관과 저축의 필요성, 계획적인 용

돈 사용방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기 금융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관을 형성하고,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금융 생활 습관을 긍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보드게임을 하면서 금융 개념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수업 후 받은 학습지로 가정에서도 복습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금융.경제는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인데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금융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기초지식을 습득해 건강한 금융습관을 형성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평택시가족센터, 요양기관 3곳과 업무협약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라온요양원(원장 지미경), 늘푸른요양원(원장 박예현), 환타시아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태원)와 결혼이민자의 요양보호사 실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평택시가족센터의 ‘모두잡(JOB)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실습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수료 후 결혼이민자들의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결

혼이민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취업 기반 마련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온요양원 지미경 원장은 “결혼이민자들이 현장에서 실습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늘푸른요양원 박예현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타시아노인복지센터 김태원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요양 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업무협약(MOU)을 맺은 기관들은 결혼이민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안정적 취업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군인가족 함께하는 문화와 여가

평택시가족센터, 군인가족 계절체험학습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8월 23일 오성면에 있는 초록미소마를 체험장에서 평택시 관내 육.해.공군 군인가족 15가정을 대상으로 ‘3군 어울림 계절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택시 자치행정협치과 군인가족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평택시가족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했다. 육군3075부대, 해군제2함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등 다양한 군인가족들이 참여해 자연 속에서 어울리며 소통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에 참여한 가족들은 견과류 영양쌈장 만들기, 아로마 디퓨저.향수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일상의 단조로

움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힐링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한 참가자는 “직업 특성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데, 이번 체험을 통해 가족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군인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여러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군인가족의 복지향상과 문화.여가 기회제공을 위해 매년 군인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3군이 모두 주둔한 군사 도시적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비대면 홈캠핑, 계절체험학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도 ‘3군 어울림 계절체험학습’은 관내 군인가족 60가정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여름.가을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2호점

‘보드게임 놀이터’

최적의 공간

다양한 게임

프로그램 내용
: 보드게임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가족참여 보드게임 프로그램

모집대상
: 평택시거주 19년생~21년생 아동과 보호자 12가정

진행일시
: 2025.09.01.~09.29. 매주 월요일 각 반별 5회 진행
A반(19~21년생) 16:00~16:40 해당 아동과 보호자 6가정 12명
B반(20년생) 16:50~17:30 20년생 아동과 보호자 6가정 12명

진행장소
: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2호점
고덕국제대로202, 르 플로랑@ 내 공동육아나눔터

신청일시
: 2025.08.18.(월) 10:00~마감시까지

신청방법
: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ptfc.familynet.or.kr>)에서 보호자명/아동명으로 회원가입 후 보호자를 가족대표로 체크 후 아동 아이디 추가하여 등록 ➡ 해당 프로그램 신청하기 클릭 후 가족선택에서 아동 아이디 확인 후 신청

문의
: 031)611-0308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2호점

※ 5회 모두 참여 가능시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 프로그램 참여 신규 우선 선정-선착순 접수 바랍니다.
※ 참여자 중 대표 1명만 신청 시 대기순번으로 변경됩니다.
※ 보호자 1인과 아동 1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형제/자매 동시 신청 및 동반 참여 불가
※ 접수번호는 선정번호가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A반 신청 바로가기

B반 신청 바로가기

가족센터 소식지 및 홈페이지 활동사진 사용 동의 필수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한국 정착, 용인시가족센터 함께!

결혼이민자 위한 운전면허 교육, 소통 프로그램, 맞벌이 지원사업 등



#결혼이민자,외국인 ‘운전면허 필기반’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 (센터장 유지영)는 용인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을 위한 ‘운전면허 필기반’을 운영한다. ‘운전면허 필기반’은 용인시 거주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15명을 대상으로 하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진행된다.
운전면허 필기교육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화,목 총 4회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신청 시 용인시가

족센터 홈페이지에 신청 후 구글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070-7477-8540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PLUS UP’
용인시가족센터는 용인시 거주 다문화가족 10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PLUS UP’를 운영한다.
자녀 연령 초등 5학년~중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모집하며, 총 4회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1회기는 지난 8월 23일 진행됐으며, 오는 9월 20일 2회기가 운영된다. 3회기는 10월 25일, 4회기는 11월 22일 나들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통 프로그램으로 가족사진을 활용한 정서 탐색 및 소통의 시간을 갖는 사진 활동 ‘찰칵, 우리다움’과 협동 프로그램으로 함께 요리하며 즐기는 소통과 협력의 시간인 ‘푸드테라피’, 친화 프로그램인 나들이가 마련된다. 신청은 홈페이지, QR 코드, 전화(070-7477-9201)로 하면 된다.

#‘워킹맘을 위한 힐링 마더스 클럽2’
용인시가족센터는 워킹맘의 가사,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가족지원사업인 ‘워킹맘을 위한 힐링 마더스 클럽2’를 오는 10월과 11월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18일, 25일, 11월 1일과 8일 총 4회기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11월 8일은 10~12시) 운영된다.
‘워킹맘을 위한 힐링 마더스 클럽’은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7점(5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는 회기수를 늘리고 상,하반기로 나눠 워킹맘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상반기(6월)에는 그림책 원예테라피, 공예테라피, 푸드테라피,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반기(10~11월)에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워킹맘을 위한 힐링 마더스 클럽2’가 운영된다.

김영의 기자

용인에서 ‘세계 예술 &문자 엑스포’ 개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세계 각국의 문자와 한글을 예술로 승화한 대규모 국제예술축제인 ‘2025 용인 세계 예술&문자 엑스포’가 29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월 7일까지 10일간 이어진다.
‘예술의 빛, 문화의 꽃’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엑스포에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등 12개국 해외 작가 16명을 비롯해 국내 대표 작가 200여명이 참여해 문자와 예술이 융합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김창완, 남궁옥분, 조관우, 추가열, 팜핀현준, 김리원 등 연예인 작가들이 참여한 ‘셀럽 작가존’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엑스포 기간 용인실내체육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김영의 기자

용인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을 위한
운전면허 필기반

대상 : 용인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15명
※ 5회기 100% 참석 가능자 우선 접수

일정 안내

운전면허 필기교육

● 일 시 : 9/16(화) ~ 9/25(목)
매주 화, 목 10시~13시 4회기

운전면허 필기시험

● 일 시 : 9/30(화) 10시~13시

장 소 : 용인동부경찰서(처인구 금학로 143)
※ 필기시험 9/30(화)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 (기흥구 용구대로 2267)
※ 기관 사정으로 인해 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아래 2가지 모두 신청해야 신청완료!!
1.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참여자 이름으로 가입 및 신청)
2. 구글폼(온라인폼) 신청

문의 : 사업1팀 070-7477-8540

1번

2번

이게 운전면허증이다!

용인특례시 | 지구촌사회복지재단 | 용인시가족센터 | 한국도로교통공단 | 용인동부경찰서

[맞벌이가족지원사업]

워킹맘을 위한 힐링 마더스 클럽2

모집기간 8/26 (화) ~ 10/9 (목)

참여대상 용인시 맞벌이가정(워킹맘) 20명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 담당자 연락 받으신 후
①개인정보동의서 ②증빙서류 제출(부부 모두 해당)

증빙서류: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근로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中 1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는 회사 직인 필요
E-mail: yongincenter@hanmail.net (제목: 워킹맘을 위한 힐링 마더스 클럽2 신청)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일시	비고
워킹맘을 위한 힐링 마더스 클럽 2	[그림책 원예테라피]	-그림책 읽고 감정 나누기 -생화 꽃도시락 만들기	① 10/18 (토) 14:00~16:00
	[공예테라피]	- 글라스아트 - 감성을 담은 '티라이트 홀더' 만들기	② 10/25 (토) 14:00~16:00
	[푸드테라피]	- 나를 위한 푸드테라피 - 퓨전 전통다과 : 크림치즈 호두 곶감말이	③ 11/1 (토) 14:00~16:00
		- 가족과 함께 푸드테라피 - 재첩 재료(고구마) 요리 : 고구마 케이크, 고구마 라볶이	④ 11/8 (토) 10:00~12:00

일정 및 시간 변동가능성 있습니다

신청문의 사업1팀 담당자 070-7475-9205

QR신청

용인특례시 | 지구촌사회복지재단 | 용인시가족센터

“Không được để tai nạn lao động lặp lại... Nếu không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an toàn sẽ còn thiệt hại hơn” 반복되는 외국인 산업재해 막아야

Từ đầu năm đến nay, liên tiếp xảy ra các tai nạn lao động dẫn đến tử vong của công nhân nước ngoài, Tổng thống Lee Jae-myung cũng đã chỉ đạo phải nỗ lực hết sức để không xảy ra tai nạn lao động. Chúng ta cùng xem có chuyện gì xảy ra nhé?

Các tai nạn lao động lặp đi lặp lại của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Gần đây, tại các công trường ở Hàn Quốc,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thường được bố trí vào các công việc nguy hiểm và bị đưa vào làm việc mà không có các biện pháp an toàn đầy đủ, dẫn đến những vụ tai nạn gây tử vong hoặc thương tích nghiêm trọng liên tiếp xảy ra.

Vào tháng 6 vừa qua, tại công trường xây dựng đường cao tốc do công ty 'POSCO E&C' thi công, một lao động mang quốc tịch Sri Lanka đã tử vong do bị cuốn vào máy khoan. Đầu tháng 8, tại một công trường đường cao tốc khác, một lao động 30 tuổi mang quốc tịch Myanmar cũng rơi vào tình trạng ngừng tim, nghi do bị điện giật.

Đầu tháng 7, tại công trường xây dựng một chung cư ở Gumi, tỉnh Gyeongbuk, một lao động thời vụ 20 tuổi mang quốc tịch Việt Nam đã ngã xỉu và tử vong do nắng nóng gay gắt. Cùng tháng đó, tại một nhà máy ở Gimpo, tỉnh Gyeonggi, một lao động mang quốc tịch Myanmar đã mất ý thức và qua đời sau ca làm đêm.

Tỷ lệ tai nạn lao động ngày càng tăng hằng năm

Vấn đề là tỷ lệ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tử vong do tai nạn lao động đang tăng theo từng năm. Theo Ủy ban Nhân quyền Quốc gia,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hiếm 9,2% (85 người) tổng số người tử vong do tai nạn lao động vào năm 2022, 10,4% (85 người) vào năm 2023, và 11,8% (47 người) trong nửa đầu năm 2024. Khi xét đến tỷ lệ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hỉ khoảng 5%, điều này cho thấy công việc nguy hiểm đang tập trung tương đối nhiều và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Để giải quyết những vấn đề này, cần phải xây dựng một hệ thống quản lý an toàn phù hợp với đặc điểm của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bao gồm ▲hỗ trợ ngôn ngữ ▲nâng cao chất lượng đào tạo an toàn ▲bảo đảm quyền từ chối thực hiện các công việc nguy hiểm, và đảm bảo áp dụng thực tế tại hiện trường. Bộ trưởng Bộ Lao động Kim Young-hoon cho biết: “Việc tạo ra môi trường để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thể làm việc mà không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là quan trọng nhất,” đồng thời nhấn mạnh: “Mọi hành vi xâm phạm quyền con người của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sẽ bị xử lý theo nguyên tắc không khoan nhượng.”

Không khoan nhượng với việc vi phạm quyền con người của người di cư

Vấn đề đang rất nghiêm trọng nhưng chưa có cải thiện, nên cuối cùng Tổng thống đã phải vào cuộc. Tổng thống Lee Jae-myung đã phát biểu tại hội nghị

chính phủ ngày 12 tháng 8 “Có gì quan trọng hơn mạng sống con người chứ? Đặc biệt là nơi làm việc mà họ đến để kiếm sống không được trở thành hiện trường của cái chết. Chúng ta phải thoát khỏi những tai nạn lao động lặp đi lặp lại. Những doanh nghiệp không thực hiện đầy đủ các biện pháp an toàn cần bị xử lý nghiêm khắc.”

Tổng thống cũng nhấn mạnh: “Nếu ai đó không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an toàn để kiếm tiền hoặc giảm chi phí, và điều này dẫn đến cái chết của một người thì chẳng khác gì tội giết người,” đồng thời chỉ ra rằng “Nếu không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an toàn để tiết kiệm chi phí, thì phải khiến hậu quả trở nên tồi tệ hơn.”

Tổng thống Lee cũng đề cập đến vấn đề vi phạm nhân quyền, bạo lực và phân biệt đối xử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và các nhóm yếu thế trong xã hội. Ông nói: “Hàn Quốc có thể được coi là một quốc gia dân chủ mẫu mực, coi trọng sự đa dạng và tính bao dung, nhưng gần đây đã xảy ra những việc không xứng đáng với điều đó.” Ông nhấn mạnh: “Các cơ quan chức năng cần thực hiện nghiêm túc các biện pháp cần thiết để ngăn chặn việc phân biệt đối xử bất công hay vi phạm nhân quyền đối với lao động di cư, người nước ngoài hoặc các nhóm yếu thế, và nếu cần, hãy thiết lập các biện pháp bổ sung về mặt thể chế.”

〈한글 기사 34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ระบบฝึกอบรมผู้ดูแลผู้สูงอ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อย่างเต็มรูปแบบ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

ระบบฝึกอบรมผู้ดูแลผู้สูงอ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อย่างเต็มรูปแบบในเกาหลี

เมื่อไม่นานมานี้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และ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ได้ประกาศผลการคัดเลือกขั้นสุดท้ายสำหรับ “มหาวิทยาลัย กอบรมผู้ดูแลผู้สูงอ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ระบบมหาวิทยาลัยฝึกอบรมนี้ออกแบบมาเพื่อแก้ไขปัญห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บุคลากรดูแลผู้สูงอ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 โดยกำหนดให้มหาวิทยาลัยชั้นนำ ในภูมิภาคเป็น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ฝึกอบรมผู้ดูแลผู้สูงอายุต่างชาติ” และดูแลกระบวนการทั้งหมดอย่างเป็นระบบ ตั้งแต่ ①การดึงดูดนักศึกษา ต่างชาติ → ②การจัดหลักสูตรปริญญา → ③การสอบเพื่อรับคุณวุฒิผู้ดูแลผู้สูงอายุ → ไปจนถึง ④การหางาน

รัฐบาลได้จัดตั้ง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คัดเลือก ซึ่งประกอบด้วยผู้เชี่ยวชาญจากภาคเอกชนเข้าร่วม และได้พิจารณา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ผู้สมัครที่เสนอ โดยองค์กรปกครองส่วนท้องถิ่นระดับจังหวัด 13 แห่ง ก่อนจะคัดเลือกมหาวิทยาลัยทั้งหมด 24 แห่ง ให้เป็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ฝึกอบรม

มหาวิทยาลัย 24 แห่งที่ได้รับคัดเลือกให้เป็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ฝึกอบรม จะดำเนินหลักสูตรปริญญาเพื่อฝึก

อบรมผู้ดูแลผู้สูงอายุผ่านภาควิชา เฉพาะสำหรับ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 ตลอดช่วงโครงการนาร่อง 2 ปี (2026~2027) โดยหลักสูตรนี้จะมี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สอนด้านการดูแลผู้สูงอายุ รวมถึงการ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เฉพาะทาง ตามแนวทางที่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และ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กำหนดไว้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ฝึกอบรมสามารถเปิดหลักสูตรปริญญาฝึกอบรมผู้ดูแลผู้สูงอายุได้ตั้งแต่ภาคเรียนที่ 1 ปีการศึกษา 2026 และสามารถใช้ชื่อ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ฝึกอบรมผู้ดูแลผู้สูงอ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ในการรับสมัครนักศึกษาใหม่ปีการศึกษา 2026 ได้

โดยเฉพาะ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ที่ได้รับการกำหนดให้เป็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ฝึกอบรม จะได้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ดังต่อไปนี้ หากมหาวิทยาลัยฝึกอบรมประสงค์จะดำเนินโครงการเชื่อมโยงกับมหาวิทยาลัย ภายใต้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ปรับตัวระยะต้น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หรือโปรแกรม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พิจารณาเป็นพิเศษในการคัดเลือกหน่วยงานดำเนินงาน อีกทั้งสำหรับ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

ที่ เข้าศึกษาในภาควิชาเฉพาะของมหาวิทยาลัยฝึกอบรม ก็จะได้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 เช่น การผ่อนปรนเงื่อนไขด้านการ

เงินในการออกวีซ่า เพื่อสนับสนุนการฝึกอบรมผู้ดูแลผู้สูงอ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ระบบนี้มีข้อได้เปรียบตรงที่ช่วย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ต้องการทำงานในเกาหลี สามารถจัดการเรื่อง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การเข้ามหาวิทยาลัย, การรับปริ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หางาน ได้ครบในกระบวนการเดียว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ในเกาหลียังมีผู้ดูแลผู้สูงอายุเป็นงานที่หนักและค่าตอบแทน ไม่สูงนัก จึงยังไม่อาจคาดได้ว่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ะมีทำที่ตอบรับอย่างไรในอนาคต

ต่อไป รัฐบาล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และประเมินผลอย่างละเอียด ก่อนตัดสินใจว่าจะปรับโครงการ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ฝึกอบรมผู้ดูแลผู้สูงอายุ 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ให้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ถาวรหรือไม่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จอง ซองโฮ กล่าวว่า “ผ่านระบบมหาวิทยาลัยฝึกอบรมผู้ดูแลผู้สูงอ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ท้องถิ่นจะ สามารถผลิตผู้ดูแลผู้สูงอายุที่จำเป็นต่อชุมชนโดยตรง จึงคาดว่าจะมีส่วนช่วยอย่างมากในการแก้ปัญหาขาดแคลนบุคลากรดูแลผู้สูงอายุ” และกล่าวเสริมว่า “ต่อไปจะดำเนินนโยบายหลากหลายเพื่อพัฒนาบุคลากรที่จำเป็นต่อสังคมเกาหลีต่อไป” <한글 35면>



네팔 티즈 축제로 지역사회 다문화 화합 이끌다

용인외복, 네팔 전통과 춤으로 물든 무대...다문화 공존의 의미 더해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지난 24일 네팔의 전통 명절 ‘티즈(Teej)’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네팔 출신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용인 지역 커뮤니티와, 광주 지역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했으며, 네팔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6개국 200여 명의 외국인주민이 참여해 다문화 화합의 장이 됐다.

티즈 축제는 힌두교 여성들이 붉은 전통의상 ‘사리’를 입고 춤과 노래를 즐기

며 가족의 행복과 건강, 남편의 장수를 기원하는 날로, 여성의 신앙과 가족애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전통행사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통 춤과 노래 공연, 참가국별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김용국 센터장은 축제 개최식에서 네팔인 연합회로부터 외국인주민 지원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용국 센터장은 “티즈 축제가 여러 나라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확대된 것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네팔인 연합회는 “이번 티즈 축제가 네팔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이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교류의 장이 되어 반갑다”며, “앞으로도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다문화 공존 사회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용인 반려동물 교육·상담 문화교실 참가자 모집

11월까지 상시 접수...반려견 미용·위생 교육, 행동교정 교육 등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교육·상담 문화교실’을 열고 참가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문화교실은 11월까지 진행되며,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나의 해방일지’ 산책·배변 훈련 ▲‘나와 댕댕이의 해방일지’ 반려견 미용·위생 관리 ▲‘댕댕이의 해방일지’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등 3개 과정이다.

‘나의 해방일지’ 교육은 신청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학교 또는 신청자와 일정 조율 후 시행된다.

‘나와 댕댕이의 해방일지’는 매주 토요일 기흥구 도그아카데미(동백1로 31 윤들래 뜰)에서 진행된다.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교육을 비롯해 건강·위생·기본 미용·패티켓 교육을 2주 과정으로 진행하며, 2주 과정 완료 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댕댕이의 해방일지’는 전문 훈련사가 진행하는 반려견 행동 교정 교육으로, 매주 토요일 처인구 반려견 운동장(이동읍 묵리 432)에서 반려견의 체격과 견종에 맞춘 그룹수업으로 진행된다. 산책법

과 배변 훈련 등 생활 교육과 함께 반려생활 고민 상담 시간도 제공된다.

모든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용인시 반려동물 문화교실 홈페이지(www.kds-edu.net)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용인시 관계자는 “반려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문화교실을 통해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오는 10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인 ‘2025 용인시와 행복하개’를 개최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용인시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생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지에 위치한 용인시 평생학습관에서 ‘제60기 정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제60기 정기교육 프로그램은 ▲‘건강한 생활 요리’ 등 조리 분야 12개 ▲‘간단 헤어 커트’ 등 헤어·뷰티 분야 3개 ▲‘한복만들기’, ‘플라워 테라피’ 등 기술·실용 분야 8개 ▲‘컴퓨터 사용 초보’ 등 정보화 분야 3개 ▲‘스페인어’, ‘알기 쉬운 부동산 재테크’ 등 인문·교양 분야 12개 ▲‘현대 궁중 민화’, ‘해금’ 등 문화예술 분야 14개 ▲‘한식조리기능사’, ‘웃음치료사’ 등 자격취득 분야 16개 등 총 68개 강좌가 마련됐다.

총 수강 인원 10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은 9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주간 진행된다.

수강료는 강좌 특성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용인특례시민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시에 주소를 둔 기업 재직자, 재외국민, 결혼이민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용인시, 신갈어린이 공원 새단장 마무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신갈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했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시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들여 노후화한 어린이 조합놀이대와 바닥 포장을 교체하고, 어르신을 위한 운동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맨발길도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한 맨발길은 황토죽장, 황토지압블록, 황토길, 세족장으로 이뤄졌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재정비로 어린이, 어르신을 비롯한 시민들이 공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맨발길을 잘 조성했고, 바닥포장을 바꿨으며, 어르신을 위한 운동기구와 어린이 놀이시설도 교체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지난 18일 물놀이장 11곳을 폐장했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박양희 연천군의원, 인권과 안전 보호해야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은 지난 5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양희 의원은 최근 공개된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단순히 타 지역의 일탈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계기로 관내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인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다문

화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인권 교육의 대상을 산업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와 계절 노동자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과 기숙사를 방문해 노동환경 및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찾아가는 상담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가 '소비자이자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금융·교통 등 일상 서비스에 대한 안내 시스템을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양희 의원은 "노동은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안전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며, 연천군이 성숙한 지역사회이자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농촌 어르신 찾아가 무료 진료

연천군, '농촌왕진버스' 농업인 215명 서비스



연천군은 지난 26일 연천농협에서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왕진버스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농촌 어르신을 위해 의사와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농촌왕진버스는 연천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연천군은 농촌왕진버스를 농협별로 운영해

총 3차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연천농협을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을 마쳤다.

특히 구강검사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는 한방 진료 역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연천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농식품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소속 의료진 50여 명이 진료했으며, 연천읍·신서면·중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215명이 진료 및 상담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연천군에서 올해 첫 시행됐으며, 올 여름동안 각 지역농협을 순회하며 총 710명이 검진을 받았다.

이지은 기자

접경지역 고려한 노인복지 절실

윤종영 경기도의원, 노인복지 현안 간담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월 26일(화) 연천군노인복지관에서 경기도 노인정책팀, 연천군 사회복지과, 연천군 노인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노인복지 현안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지회와 노인복지관의 정체성 확립 ▲노인복지관 운영비 도비 지원 비율 조정 ▲노인대학 동아리 강사로 지원 방안 ▲어르신 미담 사례 포상 확대 ▲1사1경로당 사업 활성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날 참석한 김학석 연천군노인복지관장은 "노인지회와 복지관의 기능이 혼재될 경우 역할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기관별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협력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김정혜 연천군 사회복지과장은 "연천군은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 수준이라

군비 부담이 크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 차원의 차등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탁민영 경기도 노인정책팀장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조율은 현재 도비 10%·군비 90%로 책정되어 있으나,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일부 수당은 이미 도비 100% 혹은 5대5로 지원되고 있다"며 "연천군의 건의 사항을 내부 검토해 예산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은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인복지관 운영비 도비 보조율의 비율을 현재의 도비 대 군비 1대9에서 최소 3대7, 가능하다면 5대5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또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강사료를 자비로 충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문제는 경기복지재단의 '즐거터' 공모사업이나 '이음터' 사업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양육자 주도 놀이문화 확산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28일 왕징면 알멕스랜드에서 양육자 주도의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보드락 아웃리치 자조모임' 발족식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지난해와 올해 진행된 '보드락 아카데미' 1·2기 수료자 중 자격증 및 수료증을 취득한 10여 명의 양육자가 참여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자격증·수료증 수여식과 함께 향후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는 등 참석자들은 '보드락 아카데미'에서 습득한 역량을 가정과 지역사회에

서 어떻게 활용할지,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또 이날 봉사 단장을 선출 해 모임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체계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는 연천군이 점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미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보드락 아웃리치 자조모임은 양육자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연천군의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과 세대 간 교류·봉사를 이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보드락 아카데미를 통해 양육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가족 야간 곤충 탐사 진행

과천 야생화자연학습장, 생물다양성 교육



푸른과천환경센터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과천야생화자연학습장(밤나무길 100)에서 가족 대상 ‘야간 곤충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 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총 40가족이 참여한 이번 탐사는 불빛에 모여드는 다양한 곤충과 생물을 직접 찾아보고 관찰·기록하는 가족 참여형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큰광대노린재, 버들하늘소, 갈색여치, 딱정벌레류 등 수십 종의 곤충과 생물을 관찰한 뒤, 모

든 개체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 생태계 보전에 동참했다.

프로그램에는 곤충 교육 전문가 오홍식 박사와 과천시 환경교육 전문 강사가 함께해, 곤충의 생태와 서식 환경, 관찰 방법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했다. 참가 가족들은 관찰과 교육을 통해 기후 위기 속 생물다양성 보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했으며, 자녀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계용 과천시장은 “오늘의 야간 탐사와 생물 관찰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어른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야생화자연학습장은 맹꽁이, 반딧불이 등 희귀종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외국인 투기 차단’ 과천시 전역



과천시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과천시 전역의 주택’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 간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허가 대상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매수 시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2025년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밥먹자 국밥집과 함께하는
"일습형 창업체험" 프로그램

과천에서는
나도 사장님~!

#창업체험 #한국정착 #밀키트 #할 수 있다!

일시

9/8(월)~10/20(월) 10:00~13:00 (매주 월,6회)
*10/6(월)은 추석연휴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내용

지역 연계 밀키트 창업체험 프로그램

대상

한국정착 3년 이상의 결혼이민자 8명

장소

과천시창업지원센터 공유주방 및 회의실

신청방법

과천시가족센터 홈페이지신청

신청기간

8/18(월) ~모집완료시 마감

문의

02)503-0070 이민란

과천관내 가족창업연구소

밥먹자 국밥집과 함께~!

과천시 Gwacheon City

가족센터 GWACHEON FAMILY CENTER

2025년 과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꽃보다 예쁜 친구들아, 어서와요!

모집 기간

연중 상시 모집

모집 대상

알공반: 7세(2019년생)-1학년, 10명 이내
달공반: 2학년-3학년, 10명 이내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

알공반: 수요일 창의수학(15:20-17:20)
목요일 책읽기(15:20-17:20)
(목요일 책읽기는 타사의책방에서 진행됩니다.)
달공반: 화요일 책읽기 (15:20-16:50)

신청 방법

전화신청 후 홈페이지 접수필요

참가비

무료

신청 및 문의

02-503-0070 이민란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11시-12:30) 아이들이 읽는
도서에 대한 학부모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15:20-16:50) 1-3학년 대상
집단놀이상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Gwacheon City

가족센터 GWACHEON FAMILY CENTER

在韩国感受菲律宾文化风情！ 한국에서 느낀 필리핀 문화의 매력!

성남시가족센터, 필리핀 미니 피에스타 개최...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은 ‘여행’

周末我参加了城南市家庭中心举办的 菲律宾文化体验活动，真的是一次特别有趣的体验～

地点在城南市家庭中心一楼大厅，一走进去就被浓浓的东南亚氛围包围：菲律宾美食试吃、手工艺小摊，还有超热情的志愿者们。

活动亮点：

① 菲律宾语小游戏：学了句简单的问候语，气氛轻松又欢乐！

② 传统游戏体验：有点像中国的踢毽子，简直轻松拿捏～

③ 地道美食试吃：菲律宾炒面、炸春卷、小金桔饮料……味道和越南菜有几分相似，完全符合我这种亚洲胃的喜好～



对我来说，这不仅仅是一次文化体验，更像是一场“微旅行”。在这里我还感受到中菲文化的相似点，也体会到韩国社会对多元文化的包容。作为一个在韩国生活的外国人，这样的活动让我少了几分“身在异乡”的孤独，多了一份“世界是一家”的温暖。

지난 8월 23일 저는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에서 열린 필리핀 문화 체험 행사에 다녀왔어요. 정말 특별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답니다~

장소는 성남시가족센터 1층 로비였는데, 들어서자마자 동남아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필리핀 음식 시식, 수공예 부스, 그리고 너무 친절한 자원봉사자들까지!

행사 하이라이트:



① 필리핀어 미니 게임: 간단한 인사말을 배워봤는데 분위기가 정말 즐거웠어요!

② 전통 놀이 체험: 중국의 제기차기랑 비슷해서 저한테는 정말 익숙하고 쉬웠어요~

③ 현지 음식 시식: 필리핀 볶음면, 춘권, 갈라만시 주스까지... 맛이 베트남 음식이랑도 조금 비슷해서, 아시아 입맛인 저에게 딱이었답니다~

저에게 이번 경험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작은 ‘여행’ 같았어요. 중국과 필리핀 문화의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포용력도 체감할 수 있었죠.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이런 활동 덕분에 ‘타지에 있는 외로움’이 줄고, ‘세상은 하나의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우초희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성남 1인가구 건강 돌봄 교육해요

성남시 청년·중장년·노년반 등 참여...몸 튼튼 마음 튼튼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중원구 둔촌대로 100, 4층)에서 건강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을 주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반(19~39세) △중장년반(40~64세) △노년반(65~75세) 등 3개 반으로 나뉘어 20명씩 총 60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진행된다.

청년반 교육 프로그램은 1인 가구와 심리학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한다. 우울과 함께 살아가기,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을 각각의 주제로 한 4차례의 전문가 특강

과 호신술, 혈행 개선 등의 건강 체조(4회)에 참여할 수 있다. 중장년반은 ‘그림으로 읽는 정신분석학’을 다룬다. 프로이트와 무의식, 피카소, 모네 등 화가들의 무의식 흐름, 나르시시즘으로 그림 해석하기를 주제로 한 4차례의 전문가 특강과 건강 체조(4회)가 진행된다.

희망하면 종합 심리검사, 다면적 인성 검사(MMPI), 해석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년반은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기능 유지 훈련이 4차례 진행된다. 소리 내어 말하기, 머릿속 그림 선명하게 이미지로 연결하기, 이야기로 연결하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반 참여 신청은 8월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별도 수강료는 없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건강 돌봄 교육에 노년반을 신설해 기존의 노인종합복지관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면서 “1인가구 노년층을 위한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성남시와 중국 선양시대표단 자매결연 도시 간 협력 강화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중국 선양시 대표단(단장 자오웨이 부시장, 총 5명)이 자매결연도시 간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을 방문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5일 오후 5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자오웨이 중국 선양시 부시장 등 5명의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 자리에서 신 시장과 선양 대표단은 오는 9월 25~28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신세계 박람관에서 열리는 한국 주간 행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선양 한국 주간 행사는 한중 경제문화 교류행사로, 투자박람회와 연계해 열려 성남 소재 11개사가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한국 주간 개막식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 예정인 가운데 수출 상담하는 성남 기업 부스를 찾아가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선양시는 중국 랴오닝성 중심부에 있는 동북 3성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도시이다. 전체 면적 1만 2860㎢에 인구는 924만명이다. 중국 최대의 장비제조업 기지이자 오랜 역사를 가진 대규모 철강 기업이다수 있다.

송하성 기자



“스포츠로 하나 된 몽골 공동체” 건강과 친목 다져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몽골 공동체 농구대회 성황리에 개최해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병희)는 지난 8월 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송산다목적체육관에서 몽골 공동체 농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구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대와 협동심을 높이고,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몽골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날 대회에는 Marshall, Devils, Just Vibes, Velocity, Pororo, Pistol, Neg, Somersby, Frame 등 9개 팀이 출전했으며, 오전 예선과 오후 본선을 거쳐 총 15경기가 진행됐다. 경기 결과 금상은 VELOCITY 팀, 은상은 DEVILS 팀, 동상은 FRAME 팀이 수상했고, MVP는 L. ALTANTSOOJ 선수, 장거리 슈팅상은 TS. AMGALANTUGS 선수가 차지했다. 센터는 안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심판 2명을 섭외해 경기를 운영했으며, 모든 경기가 부상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됐다.

손병희 센터장은 “스포츠를 매개로 한 이번 농구대회가 몽골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화성송산포도축제
9월 6일 개막한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신면 궁평항 일원에서 ‘제11회 화성송산포도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테이스티 송산(Tasty Songsan)’을 주제로 낙조가 아름다운 궁평항에서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축제기간 동안 동탄호수공원에서는 포도 판촉 행사가 열려 도심 속에서도 화성포도의 깊은 맛과 향을 느껴볼 수 있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포도 밭기 체험’은 기존 대형 포도 밭기 체험과 함께 오크통을 활용한 미니 포도 밭기 체험도 새롭게 선보여,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포도 전시홍보관은 관람객들이 직접 포도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꾸며진다. 김영의 기자

화성특례시
HWASEONG SPECIAL CITY

가정
센터

화성시가족센터

HXF
화성시복지재단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인가구 정서지원 반려식물 전달 프로젝트

마음에 초록을 심다

대상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화성시 거주 1인가구 40명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인가구(증빙 가능한 확인서 제출 必)
- 2순위 :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관계 단절 위험이 있는 1인가구
- 3순위 : 화성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또는 관련 서비스 연계 이력이 있는 1인가구

내용 ① 반려식물 지원 '마음 전달' → 1인가구 가정에 반려식물 전달 및 말벗서비스
② 식물관리 안내 '마음 돌봄 가이드' → 식물 관리비 제공
③ 정서상태 점검 '마음 체크-IN' → 안부 연락(11~12월 중 전화상담 예정)

신청기간 2025년 8월 21일(목) ~ 마감 시까지 / 선정자 개별 연락

신청방법 구글폼(<https://forms.gle/Njj7YER2HZbspfRs5>) 신청 바로가기 ▶

*선정 시 개별 연락 예정
*선정 안내 후 3일 이내 별도 화신 없을 시 다음 순번 대기자에게 기회 자동으로 양도

문의 070-7774-7087 또는 031-352-1214(2번/친화사업팀)

매일 초록을 돌보며, 나의 하루도 더뜻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초록을 심어주세요.

가족친화적 공공예식장 사업

화성소담예식

SODAM WEDDING

화성시민을 위한 작지만 품격있고 정겨운 예식

신청대상
화성시 거주 청년 예비 부부(우선선정), 다문화(외국인)부부
-선정 기준
1) 체류지 또는 주소지가 화성시
2) 소득기준 : 중위소득 180% (우선점수)

신청방법
화성시가족센터(향남읍 평2길 16) 방문신청
** 예비부부 중 1명 방문(필수)

신청기간
2025. 08. 18.(월) ~ 접수 마감시 까지

신청서류
1. 신청서 (전화 상담 후 작성)
2. 양가부모 결혼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자격요건 확인)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지원내용
결혼 예식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예비부부 1쌍당)
** 지원항목 :
공공예식장 공간 대여(화성시가족센터 5층 만세홀 공간활용),
예식 진행에 필요한 꾸밈비(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지원

상담문의
기획운영팀 070-8891-9100

지원절차

01 사전 접수
신청서 접수 후
방문상담 및 신청서
작성 안내

02 방문
신청서 및 증명서류
지참하여 방문

03 서류검토
적합여부 확인

04 확정안내
대인자 확정 안내
및
진행사항 안내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HWASEONG SPECIAL CITY

가정
센터

화성시가족센터

“산업재해 반복되어선 안돼...안전조치 안하면 더 손해될 것”

이재명 대통령, 최근 외국인 산업재해 문제 지적 “필요한 모든 조치 할 것”



올해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반복되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최근 한국의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위험 작업에 집중 배치되고,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에 투입돼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 6월에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고, 8월 초에는 또 다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노동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어요. 7월 초에는 경북 구미의 아파

트 공사현장에선 베트남 국적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폭염 속에 쓰러져 숨졌으며, 같은 달 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선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야간 근무 후 의식을 잃고 사망했어요.

산업재해 비중, 해마다 증가해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자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2022년 전체 산재 사망자의 9.2%(85명), 2023년 10.4%(85명), 2024년 상반기에는 11.8%(47명)를 차지했어요.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약 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에게 위험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셈이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 지원 ▲안전 교육 내실화 ▲위험작업 회피권 보장 등 외국인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해야 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주민 인권 침해 용납 안해

문제가 심각한데 개선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마침내 대통령이 나섰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반복되는 산업재해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들은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대통령은 또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이 때문에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살인과 마찬가지로”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이 대통령은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는 “한국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최근 벌어지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중국어 9면, 베트남어 28면, 태국어 13면, 몽골어 34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Ерөнхийлөгч И Жэ Мён, сүүлийн үед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лын асуудлыг шүүмжилж “Шаардлагатай бүх арга хэмжээг авна” гэв

Энэ оны эхнээс хойш гадаадын ажилчд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лын улмаас нас барсан тохиолдлууд дараалан гарч байгаа бөгөөд Ерөнхийлөгч И Жэ Мён ч мө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гарахаас сэргийлэхийн тулд бүх хүч чармайлтаа гаргахыг үүрэг болгожээ. Юу болсон талаар хамтдаа хараад үзье.

Давтагдаж буй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Сүүлийн үед Солонгос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албай дээр гадаадын ажилчдыг аюултай ажилд ихээр томилж, хангалттай аюулгүй ажиллагааны арга хэмжээ авалгүй ажиллуулснаас болж нас барсан болон хүнд бэртсэн ослууд давтагдаж байна.

Өнгөрсөн 6-р сард “POSCO E&C” компанийн барьж байсан хурдны замын барилгын талбайд Шри Ланка улсын харьяат ажилчин өрөмдлөгийн машинд хавчуулагдан амиа алдсан. 8-р сарын эхээр өөр нэг хурдны замын барилгын талбайд Мьянмар улсын 30 настай ажилчин цахилгаанд цохиулсан байж болзошгүй ослоор зүрх нь зогссон.

7-р сарын эхээр Кёнбук мужийн Гүми хотын орон сууцны барилгын талбайд Вьетнам улсын 20-иод настай ажилчин халуунд унаж амиа алдсан бол, мөн сард Гёнгү мужийн Кимпо хотын нэгэн үйлдвэрт Мьянмар улсын ажилчин шөнийн ээлжийн дараа

ухаан алдаж нас баржээ.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лын хувь жилээс жилд нэмэгдэж байна

Асуудал нь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лоор нас баралтын хувь жилээс жилд нэмэгдэж байгаа явдал юм.

Хүний эрхийн үндэсний комиссын мэдээлснээр гадаад ажилчид 2022 онд нийт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лоор нас барсан хүмүүсийн 9.2%-ийг (85 хүн), 2023 онд 10.4%-ийг (85 хүн), 2024 оны эхний хагаст 11.8%-ийг (47 хүн) эзэлжээ.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хөдөлмөр эрхлэгчдийн эзлэх хувь ердөө 5% орчим байдгийг харгалзан үзвэл, харьцангуйгаар гадаад ажилчид аюултай ажилд төвлөрч байна гэсэн үг юм. Энэ асуудлыг шийдэхийн тулд ▲ хэлний дэмжлэг, ▲ аюулгүй ажиллагааны сургалтыг чанаржуулах, ▲ аюултай ажлаас татгалзах эрхийг хангах зэрэг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онцлогт тохирсон аюулгүй ажиллагааны менежментийн тогтолцоог бүрдүүлж, бодитоор хэрэгжүү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Хөдөлмөр, нийгмийн хамгааллын сайд Ким Ён Хүн “Гадаад ажилчид ялгаварлалгүйгээр ажиллах орчныг бүрдүүлэх нь хамгийн чухал” гэж онцлоод,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хүний эрхийг зөрчих аливаа үйлдэлд хүлцэнгүй хандахгүй, шууд хатуу арга хэмжээ

г авна” гэж мэдэгдэв.

Цагаачдын эрхийг зөрчихийг үл тэвчинэ

Асуудал хүндэрч байхад ч сайжруулалт хийгдээгүй учраас эцэст нь Ерөнхийлөгч өөрөө оролцлоо. Ерөнхийлөгч И Жэ Мён 8-р сарын 12-нд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хуралдаанд хэлэхдээ “Хүний амьнаас илүү чухал зүйл гэж хаана байх вэ? Ялангуяа амьдрахын тулд очсон ажлын талбай нас барах газар болох ёсгүй” гэж онцлов. Мөн тэрээр “Давтагдса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лоос зайлсхийх ёстой. Аюулгүй ажиллагааны арга хэмжээ авч ажилладаггүй компаниудыг хатуугаар хариуцлага тооцох ёстой” гэж мэдэгдэв. Ерөнхийлөгч цааш нь “Мөнгө олох, зардлаа багасгахын тулд аюулгүй ажиллагааг хангалгүй, үүний улмаас хэн нэгэн нас барсан бол энэ нь аллагатай адил. Зардлаа хэмнэх гэж аюулгүй ажиллагааг хангахгүй бол илүү их хохирол амсах нөхцлийг бүрдүүлэх ёстой” гэж тэмдэглэжээ.

Ерөнхийлөгч Ли Жэ Мён гадаад ажилчид, нийгмийн эмзэг бүлэгт хандах хүний эрхийн зөрчил, хүчирхийлэл,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лтын асуудлыг ч дурдсан байна. Тэрээр “Солонгос бол олон янз байдал, оролцоог дээдэлсэн ардчилсан улс гэж хэлж болно... 〈Зураг, ханл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지난 8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열린 '보령 머드축제'에 베트남 공동체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머드체험과 해변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유대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친목 도모와 소통을 통해 향후 공동체 활동에 활력을 더하고, 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신규 회원도 함께 참여해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었으며, 외국인 가정의 아이들도 함께 머드체험과 해수욕을 즐기며 가족 간의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대표 여름 축제인 보령 머드축제를 직접 경험하며,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충전했다.

손녕희 센터장은 "머드축제와 같은 문화체험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즐거움뿐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기회가 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주민의 "배움의 문 활짝 열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2025년 2학기 한국어교실' 개강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지난 8월 10일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2025년 2학기 한국어 교실'을 개강했다.

이번 학기는 센터 대면 수업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 그리고 마도.조암.봉담 등 교육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이 함께 운영된다.

2학기 한국어 교실에는 센터 수업 300여 명, 온라인 및 지역 수업을 포함해 총 약 400명의 외국인 주민이 참여한다. 수준별.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일상생활과 직장.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실질적인 언어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은 지리적 제약으로 학습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외국인 주민들에게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마도.조암.봉담.동탄 지역

에서는 첫날부터 열정적인 참여와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어교실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손녕희 센터장은 "새 학기를 맞아 이렇게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배움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 한 분 한 분의 성장을 응원하고,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자신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법무부, 외국인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는 제도 본격 시행 나서

한국에서 외국인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돼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어요.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①유학생 유치→②학위과정 운영→③요양보호사 자격취득→④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예요.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하여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어요.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돼요. 이 과정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이 포함돼요.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돼요.

양성대학이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며,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혜택이 제공돼요. 이 제도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한국 입국과 대학 입학, 학위 취득, 취업 등의 과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일은 힘들고 급여는 많지 않은 직종이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어요.

향후 정부는 점검과 평가를 거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제도의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 <중국어 16면, 베트남어 13면, 러시아어 17면, 태국어 28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8월 19일부터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화성 내일(JOB)학교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감사,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교육에서는 ITQ 자격증 취득,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스킬 등 기초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이집트 출신국 결혼이민자 12명 전원이 수료했다.

이번 직업훈련과정은 오는 11월 11일까지 총 23회, 69시간에 걸쳐 운영되며, 사전교육을 수료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각 나라 전통놀이, 동화책 활동, 강의용 PPT 제작, 강의계획서 작성 등 문화다양성 교육 강사로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수업이 포함된다. 또한, 수료 시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 교육 참가자는 “사전교육을 잘 마치고, 이제는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라며 “열심히 배워 사회에 도움이 되는 멋진 강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전문적인 강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향후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약하길 기대한다”라며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전문 강사로 성장하고, 자격증 취득 및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070-8831-2227)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온 가족 함께 하는 친환경 과학프로그램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운영하는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점은 지난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7가정 25명을 대상으로 ESG 연계 과학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을 주제로, 가족이 한 팀이 되어 먹을 수 있는 물병 ‘오호(Ooho)’ 만들기과 태양열 선풍기 제작을 체험했다. 참여 가족들은 이를 통해 친환경 과학의 원리를 배우고 생활 속 ESG 실천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됐다. 이날 활동은 단순한 만들기를 넘어, 가족이 함께 협력하며 환경 감수성과 실천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모는 “아이와 환경에 대해 깊이 이야기할 기회가 되어 뜻깊었다”라며 “작은 만들기 활동이 환경 보호와 연결된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 배우고 실천한 오늘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삶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ESG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달빛어린이병원 '동탄성모병원' 주말 진료시간 23시까지로 연장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9월 1일부터 관내 달빛어린이병원인 ‘동탄성모병원’의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동탄성모병원은 기존에 평일은 9시부터 23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했던 것에서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9시부터 23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의료 서비스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주말 야간이라는 의료 취약 시간대에도 소아 환자가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소아·청소년의 진료 공백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은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 확대는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아·청소년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와 지역 의료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3곳으로, 베스트아일랜드병원은 평일은 9시부터 23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한다. 센트럴아동병원은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목요일 23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김영의 기자

연령별 맞춤형 다문화교육 필요하다

신미숙 경기도의원, 교육청과 두번째 실무회의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8월 26일,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두번째 간담회를 갖고 연령별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실무회의로, 경기도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화성시청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기

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고 언어습득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한국어 랭귀지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지원 등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별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새로운 교육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경희 화성시의원도 참석하여 화성시 내 다문화교육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의견을 제안했다.

김영의 기자